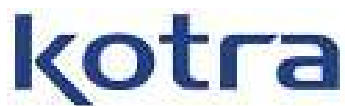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스위스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취리히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4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6
- 주요 산업 동향 /8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3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15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8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1
 - 대한수입규제동향 /23
 - 관세제도 /25
 - 주요인증제도 /27
 - 지적재산권 /28
 - 통관운송 /30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2
- 외국기업 투자동향 /37
- 우리기업 투자동향 /39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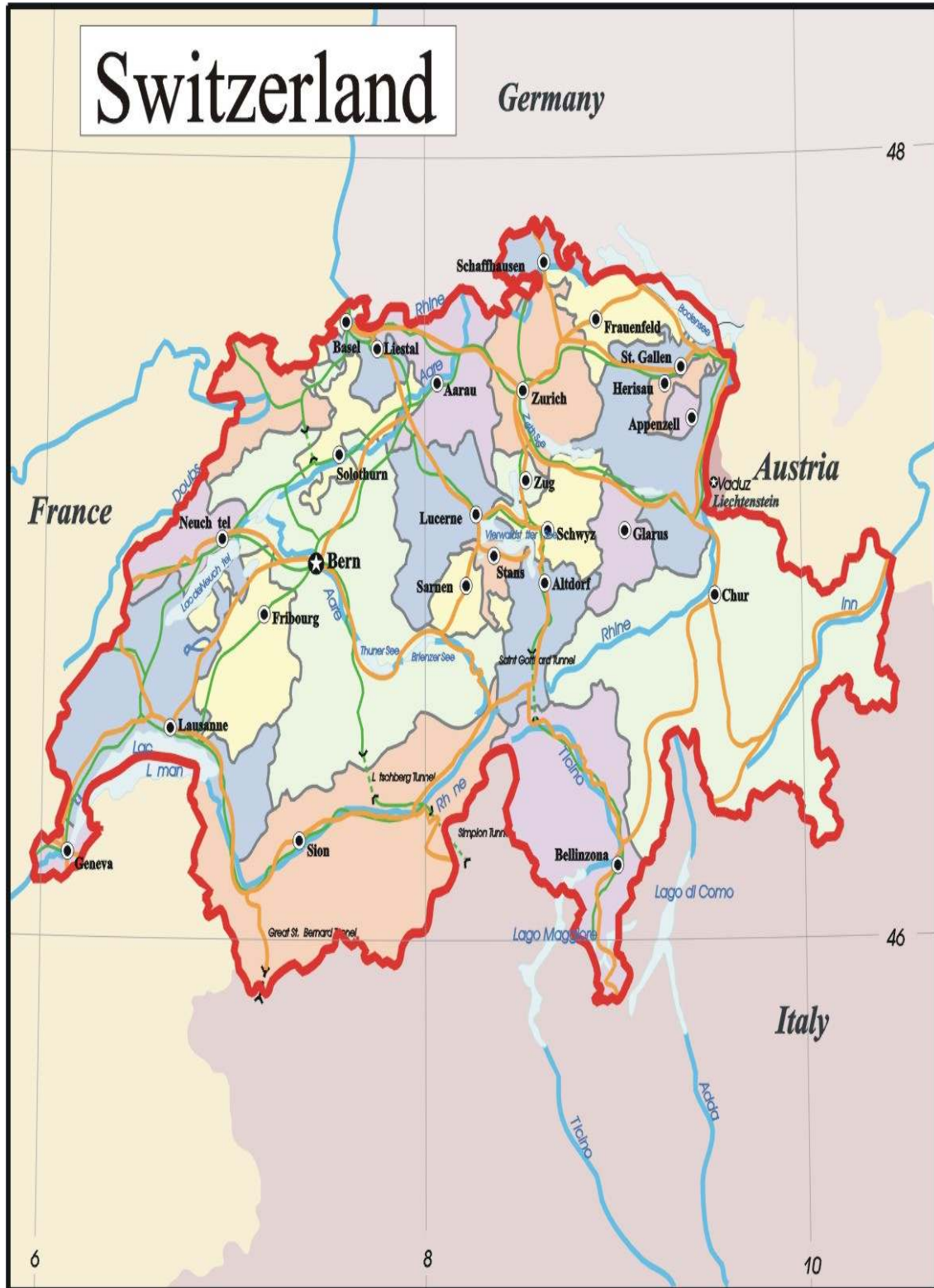
- 주요 투자법 내용 /41
- 진출형태별 절차 /43
- 투자입지여건 /49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51
- 조세제도 /55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9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61
- 물가정보 /63
- 바이어발굴 /64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65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69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70
- 이주정착 가이드 /71
- 출장가이드 /73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87
- 유관기관 웹사이트 /89



1992 MAGELLAN Geographix/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스위스(The Swiss Confederation) 현지어 명: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독일어); Confédération Suisse(프랑스어); Confederazione Svizzera(이탈리아어); Confederaziun Svizra(레토만어)
위 치	북위 45~48도의 유럽 대륙 중심부에 위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인접)
면 적	41,300km ² (※ 한국: 99,394km ²), 이 중 60%는 알프스산지
기 후	온난성 기후(1~2월 평균기온 -2~-7℃, 7~8월 평균기온 18~28℃(평지 기준))
수 도	베른(Bern)
인 구	7,701,900명
주요 도시	취리히, 제네바, 바젤, 베른, 상갈렌
민족(인종)	켈트족과 게르만족이 주류
언 어	독일어(63.7%), 불어(20.4%), 이탈리아어(6.5%), 레토로만어(0.5%), 기타(7.5%)
종 교	가톨릭(42%), 개신교(35%), 무종교(11%), 이슬람교(4%), 기타(3.2%)
건국(독립)일	1291년 8월 1일
정부형태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공화국 형태
국가원수	Ms. Doris Leuthard (임기: 2010. 1. 1 ~ 2010. 12. 31)
입 법 부	양원제(칸톤 동수 대표로 구성된 상원(Staenderat) 46명, 칸톤 인구비례로 구성된 하원(Nationalrat) 200 명)
정 당	다수의 정당 존재(2007년 이래): 사회민주당 연합(SP/PSS, 51석), 스위스국민당 연합(SVP/UDC, 44석), 자유민주당 연합(FDP/PRD, 43석), 기독교민주당 연합(CVP/PDC, 35석) 등
정부성향	중립

자료: 스위스 통계청, 스위스 정부 홈페이지(www.admin.ch).

나. 경제지표

GDP	5,418억 스위스프랑(2008년)
실질경제성장률	-2.7%(2009년 추정치; 2009년 6월 발표되었으며, 가장 최근 수치)
1인당 GDP	70,272 스위스프랑(2008년)
실 업 률	2.6%(2008년); 3.8%(2009년; 추정치)
화폐단위	스위스프랑(CHF)
환 율	○ 1 US\$ = 1.03 CHF(2009.9.22 일) ○ 1 EURO = 1.51 CHF(2009.9.22 일)
외환보유고	1,704억 달러(2009.8월말 기준)
산업구조	농업(1%), 제조업(26%), 서비스 산업(73%)
교역규모	○ 수출: 2,067 억 스위스 프랑(2008), 889 억 스위스 프랑(2009.2 분기) ○ 수입: 1,869 억 스위스 프랑(2008), 799 억 스위스 프랑(2009.2 분기)
교 역 품	○ 수출: 의약품, 기타 화학제품, 기계류 등 ○ 수입: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기계부품 등

자료: 스위스 경제부(SECO), 스위스 관세청, 스위스 중앙은행 등.

다. 한-스위스 관계

체결 협정	○ 1971. 4.7: 투자보장협정 ○ 1976.11.20: 정기항공운항협정 ○ 1977.12.12: 공업소유권협정 ○ 1979.6.28: 사증면제협정 ○ 1981.4.22: 이중과세방지협정 ○ 1990.8.20: 정기항공운항협정 부속서 개정 ○ 1995.5: 항공협정 ○ 1999.6.29: 무역경제협력협정 ○ 2005.12.15: 한-EFTA FTA(2006.9.1 일 발효) ○ 2006.10.25: 한-유럽입자물리연구소간 협력협정 ○ 2007.10.22: 한-유럽입자물리연구소간 협력협정 의정서
교역 규모	○ 대 스위스 수출: 254 백만 달러(2009.6 월), 399 백만 달러(2008) ○ 대 스위스 수입: 965 백만 달러(2009.6 월), 1,908 백만 달러(2008)
교역 품	○ 대 스위스 수출: 금, 핸드폰, 그림, 자동차 ○ 대 스위스 수입: 기계류, 화학의약품, 시계
투자 교류	○ 대 한 투자: 52 백만 달러(2009.6 월), 64 백만 달러(2008) ○ 대 스위스 투자: 전무(2009), 966 만 달러(2008)
교민	○ 2,141 명(2008 년) - 시민권자: 466 명 - 영주권자: 311 명 - 체류자(일반, 학생 및 기타 (외교, 관용)): 1,364 명

자료: 주 스위스 한국 대사관, 관세청, 지식경제부, INVEST KOREA, 수출입은행.

2. 정치 사회 동향

가. 스위스, Schengen 가입

스위스가 EU와 체결한 Schengen 제휴 협정이 2008년 12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스위스도 Schengen지역(국경 없는 여행 자유화 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육상교통이나 운하를 통한 가입국간 이동 자유화가 스위스에도 적용된다.

Schengen 협정 가입과 더불어, 스위스도 외곽 국경지역 통제, 가입국간 범죄자 체포 등과 관련된 업무(관련 정보교류, 범죄자 체포에서의 협조 등), 비자정책 등에서 기타 EU가입국들과 협력하게 된다. 한편 스위스는 EU 및 EU 관세연합 회원국이 아니므로 Schengen 가입국 내 여행자 이동자유는 보장되나 여행자가 지참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금지품목 밀반입이 예상되는 경우 샘플 검사가 있을 수도 있다.

나. 스위스, EU 경제권과 제휴 강화

Schengen 조약 가입과 더불어, 스위스는 7가지 분야에서 EU 내수시장에 근접하게 되었다. 해당 7가지 분야는 여행자 및 인력 이동 자유화, 기술 장벽, 공공 조달, 연구, 농업협정, 도로교통, 항공교통이다.

여행자 및 인력 이동 자유화로 스위스 및 EU 국민은 양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거주 및 일 자리를 구할 수 있다. 기술 장벽 해소로 양측은 인증 등을 상호 인정하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공공 조달 분야의 협력은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조달과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 국제적 입찰에 기반한다. 또한 양측은 IT, BT, 의술, 나노 기술, 신재생 에너지 및 환경기술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농업분야 협력은 무엇보다도 양측의 치즈 시장 개방에 기초를 둔다. 그 밖에 교통정책 및 항공규정 등에서도 양측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 스위스 전력공급법령(Stromversorgungsverordnung) 개정

2008년 12월 5일 연방협의회(Bundesrat)에서 전력공급법령이 채택되었다. 동 개정 법령에 따라 정전 등에 대비한 에너지 여유분 제공에 대한 비용은 전력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자도 부담해야 한다.

그 밖에 동 법령은 전선 네트워크 사용료 인하 등을 포함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kWh당 약 0.9라펜을 절약할 수 있는 효력을 가져 이를 통해 전력요금이 50%까지 인하됐다. 한편 개정된 전력공급법령에 따라 전력공급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2009년 초부터 신규 전력공급 가격을 적용하며, 2009년 7월 1일까지 과도하게 징수된 전력사용 요금을 소비자들에게 환불 예정이다.

라. 에너지 소비가 큰 전구 사용 금지

2009년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이 적어도 “E”인 전등만이 스위스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 하다 (“A”가 에너지 효율이 제일 높은 등급이며, “G”가 가장 낮은 등급). 이에 따라, 에너지 등급이 “F” 및 “G”인 전등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 참고로 지금까지 스위스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등의 대부분은 “E” 및 “G” 등급이었다.

마. 통합적 금융감독 법령 발효

2007년 7월 2일 채택된 금융감독 법령(FINMAG)이 2009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동 법령에 따라 은행, 보험 및 기타 금융계에 대한 감독이 통합되었다.

바. 온라인을 통한 관세부과

2009년 1월 1일부로 온라인 관세부과 체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수출을 위한 통관에서 종이 서류 준비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 2009년 스위스 대통령

스위스는 7개의 내각이 있으며 각료 1명이 1년을 임기로 교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취임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연말 상하 양원의 신임 투표를 거쳐 각료 연임 및 차기 대통령 취임 여부가 결정된다. 2009년 1월 1일부로 Mr. Hans-Rudolf Merz가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아. 은행계 개혁

스위스 은행계는 지난 수 년간 고객들의 비밀보장으로 크게 성장해 왔다. 연초에 시작된 미국의 탈세자를 밝혀내기 위한 스위스계 은행인 UBS 내 자국 고객리스트 요구는 스위스와 미국의 외교관계를 긴장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후 스위스와 EU의 관계도 다소 긴장된 상태이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스위스 관계

1962년 12월 양국 간 국교가 수립되어 1963년 3월에 우리나라의 상주공관이 베른에 설치되었고, 주한 스위스대사관은 1964년 6월에 설치되었다.

스위스는 중립주의와 보편성 원칙에 따라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실리 추 구적 관점에서 경제, 기술협력, 교역대상으로 한국과의 교류에 비중을 두고 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래, 중립국 감시위원단 (NNSC) 대표를 판문점에 파견, 한반도 평화 유 지에 기여하고 있다. 1974년 12월 북한을 정식 승인하였으나 경제관계를 제외 하고는 교류가 소원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북한이 스위스 기업의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으나 국가 위험도 (Country risk)가 큰 북한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1997년 1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한반도 평화정착을 주제로 남한, 북한, 미국 및 중국이 참 석한 4자 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있다.

나. 한-EFTA FTA

2000년 7월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는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 의사를 피력하였다. 2004년 5월 이후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자 FTA 공동연구가 합의 되었다. 이 후 2004년 8월 과 10월, 제네바 및 서울에서 1차 및 2 차 공동연구회의 개최되었다. 한-EFTA FTA 추진에 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공청회의를 거쳐 2004.12 월 제네바에서 양측 통상장관은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1년 동안의 준비과정과 6개 월의 협상을 통해 FTA 협정 문안과 부속서 전체가 타결되었다.

1) 상품분야

2006.9.1일부로 한-EFTA FTA가 발효됨에 따라 모든 공산물, 가공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100% 폐지되었다. 스위스가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던 분야는 진주 및 귀금속류 (71종), 의류와 그 부속품(62종),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61종), 가죽 제 품(42종) 등이었는데, 관세철폐로 말미암아 동 분야의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스위스 측은 기본농산물에 관련하여 한-스위스간 별도의 양자 농산물협정을 체결, 한국 농산물 중 51%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양허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치와 쌀 발효 주에 대한 관세 를 철폐하였고, 사과 및 배에 관하여는 쿼터 및 계절관세 적용을 통해 일부 양허하고 있다.

2) 원산지 규정

한-EFTA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FTA 특혜 원산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규정에 따라 당사국 내에서 완전 제조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제조된 상품들은 당사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역외가공 조항을 두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역외가공제품에 대해 원산지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동일한 관세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3) 서비스 무역

한-EFTA FTA 당사국들은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GATS 수준보다 높은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단, 스위스가 타 유럽국가들과 시행 중인 각종 협력사업, 즉 도로운송, 항 공운송, 건설,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는 최혜국 대우의 예외를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금융 및 해운서비스의 부분개방 등 DDA 제2차 양허안(WTO 서비스 분류 기준상 총 155개 세부업종 중 104개 분야)을 비롯하여 3개 분야(빌딩 청소업, 경영 컨설팅, 전기용품 기술검사 및 분석 서비스)를 추가로 양허하였고, EFTA도 DDA 제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했으며, 미용 및 세탁 서비스, 보안 컨설팅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확대하였다.

4) 투자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간 별도협정으로 체결하였으며 한-싱가포르 FTA 및 한-일 투자협정 수준으로 투자 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 하였다. 우리나라는 EFTA로부터의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방위 산업, 토지 취득, 공기업, 농림 축산업, 항공산업, 전력·가스·원자력산업, 금융서비스 등 국가 정책상 필요한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유보사항을 설정하였다. 투자 관련 협정으로는 그동안 1971년에 우리나라와 스위스 간 체결된 개별 투자 협정이 유일했으나 이번 동의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EFTA와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 한-스위스 외교일지

1957. 7.22	주 제네바 국제기구 및 유엔 구주사무소 대표부 설치
1962.12.19	외교관계 수립 합의
1963. 3.29	초대 이한빈 대사 신임장 제정(베른 상주공관 설치)
1965. 1.28	Jean de RHAM 주한겸임 대사 신임장 제정
1965. 3.25	제2대 정일영 대사 신임장 제정
1966. 5. 7	Albert MAYER 주 몽트르 명예총영사 임명
1967. 9.13	E.STADELHOFFER 주한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1969. 5.17	Anna MAYER 여사 주 몽트르 명예총영사(2대)에 임명
1969. 6	스위스 대사대리 Max LEU 부임
1969. 6. 4	주한 스위스 대사관 개설
1971. 5.13	제3대 강문봉 대사 신임장 제정
1971.10.28	Giovanni E.BUCHER 주한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1972. 5.12	스위스 대사대리 Charles TRUNINGER 부임
1973. 6. 9.	스위스 대사대리(제3대) LUSTENBERGER 부임
1973. 8. 2	제4대 이동원 대사 신임장 제정
1975. 5. 6	Pierre CHENOUD 주한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1975. 3.25	제5대 박근 대사 신임장 제정
1976. 8.31	제6대 천병규 대사 신임장 제정
1978. 1.	스위스 대사대리 Theodor DUDLI 부임
1979. 5.21.	제7대 송찬호 대사 신임장 제정
1980. 9.24	Carlo JAGMETTI 주한초대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81. 2.23.	제8대 정도순 대사 신임장 제정

1983. 2. 2	Bernard FREYMOND 주한 2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83. 4.18	제9대 안재석 대사 신임장 제정
1986. 5.15	제10대 권동만 대사 신임장 제정
1987. 2.23	Hans-Peter ERISMANN 주한 3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89. 5.25.	제11대 이원호 대사 신임장 제정
1990. 2. 6.	Walter FETSCHERIN 주한 4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92. 3.26	제12대 강대완 대사 신임장 제정
1995. 5.26	제13대 김해선 대사 신임장 제정
1996.12.11	Eric PFISTER 주한 5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98. 8.17	제14대 권순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99. 5.18	주 취리히 명예영사 Rolf Peter Erb 임명(2004.1.20 Rolf Peter Erb 명예영사 사임)
2000. 8. 7	주 로잔느 명예영사 Jean-Claude Badoux 임명 (2005.8.6 Jean-Claude Badoux 명예영사 임기 종료)
2000.10.26	Christian Muehlerthaler주한 스위스 대사 신임장 제정
2001. 3.27	제15대 문동석 대사 신임장 제정
2004. 4. 1	제16대 박원화 대사 신임장 제정
2005. 3.14	주 취리히 신임 명예영사 Martin Senn 임명
2006. 2.14	주바젤명예영사 Rudolph Schiesser 임명(07.2.13 사임)
2007. 4.19	제17대 현 장철균 대사 신임장 제정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동향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성장세를 유지하던 스위스 경제는 2008년 4/4분기 이후 침체되고 있다.

< 스위스의 2008년 분기별 경제지표 변화율(2007년 분기 대비) >

(단위: %)

지표	2007	2008	2008.1분기	2008.2분기	2008.3분기	2008.4분기
GDP 성장률	3.3	1.6	3.1	2.7	1.4	-0.6
소비지출	1.6	1.5	1.1	1.9	1.4	1.3
(민간소비)	(2.1)	(1.7)	(1.8)	(2.6)	(1.5)	(1.0)
(공공지출)	(-1.1)	(0.0)	(-2.6)	(-1.7)	(1.2)	(3.3)
설비투자	5.4	-1.7	2.1	-1.9	-1.3	-5.4
(설비확대)	(10.9)	(-0.8)	(6.4)	(-2.1)	(-0.8)	(-6.2)
(신규투자)	(-1.5)	(-2.9)	(-3.7)	(-1.7)	(-2.0)	(-4.4)
수출	11.3	4.6	4.0	11.9	7.5	-4.4
수입	11.0	1.8	2.9	7.0	4.9	-7.2

자료: 스위스 경제부(SECO), 스위스 관세청.

스위스 경제부(SECO)는 매년 4차례에 걸쳐 스위스 경제성장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2009년에 대한 전망치는 최근 수치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스위스 경제 둔화는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린 수출 부진에 주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출은 스위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나, 독일을 포함한 EU 지역,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스위스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출부진에 기인하여 기업의 사업여건 악화, 이로 인한 기업의 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 및 실업률 증가, 민간소비 감소 등이 이어지고 있다.

< 스위스 경제 전망 >

(단위: %)

	2009			2010		
	2009.6월	2009.3월	2008.12월	2009.6월	2009.3월	2008.3월
GDP 성장률	-2.7	-2.2	-0.8	-0.4	0.1	1.0
민간소비	0.2	0.6	1.2	-0.2	0.0	0.7
공공지출	2.4	4.2	0.3	-1.3	1.9	1.4
기업의 신규투자	-2.0	0.0	0.0	0.5	0.5	0.5
기업의 설비확대	-10.0	-10.0	-8.0	-5.0	-2.5	-2.5
수출	-11.2	-8.1	-2.6	1.4	1.0	3.2
수입	-6.9	-5.2	-1.0	0.8	0.9	2.3
고용	-1.2	-1.2	-0.3	-2.3	-1.7	-0.8
실업률	3.8	3.8	3.3	5.5	5.2	4.3

자료: 스위스 경제부(SECO).

* 2008.12월, 2009.3월 및 6월에 각각 발표된 2009년 및 2010년 경제수치 전망치;

나. 경제 전망

스위스 경제부(SECO)를 중심으로 한 스위스 내 경제 전문가들은 2009년 4-5월을 계기로 많은 국가들에서 기업들의 비관적인 사업전망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기업들의 생산, 납품주문, 수출도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으로 보고 있으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스위스 경제는 세계경제의 위축이 점차 회복되면서 불경기를 점차 극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10년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된다. 2009년 3월의 경우 2010년 스위스 경제성장이 0.1%로 다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6월에 있어 세계경제 회복이 기대치를 다소 밀돌면서 성장률이 -0.4%로 하향 조정되었다. 경제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고용률 및 민간소비는 2009년 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도 2010년에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점차적인 세계경제 회복에 발맞추어 수출 및 수입은 2010년에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경제 전망

(단위: %)

	2009		2010	
	2009.3월	2008.12월	2009.3월	2008.3월
GDP	-2.2	-0.8	0.1	1.0
민간소비	0.6	1.2	0.0	0.7
공공지출	4.2	0.3	1.9	1.4
기업의 신규투자	0.0	0.0	0.5	0.5
기업의 설비확대	-10.0	-8.0	-2.5	-2.5
수출	-8.1	-2.6	1.0	3.2
수입	-5.2	-1.0	0.9	2.3
고용	-1.2	-0.3	-1.7	-0.8
실업률	3.8	3.3	5.2	4.3

자료: 스위스 경제부(SECO)

* 2008.12월 및 2009.3월의 경제성장 전망치 의미;

2. 주요 산업 동향

가. 스위스 산업 개관

1) 산업별 GDP 비중

스위스의 산업별 GDP 비율을 살펴보면, 자동차 판매 및 수리, 금융 서비스, 은행업 등 서비스업이 69.4%, 에너지, 건설 등 제조업이 29.1%, 농업 등 1차 산업이 1.5%를 점유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GDP 기여도가 대체로 높고, 1차 산업의 경우는 농업부문의 취약한 경쟁력으로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체시장의 협소함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소비가전 완제품 제조산업은 거의 없으나 고가의 의료장비, 반도체 장비, 차량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 전자 부품 산업은 매우 강하다.

산업별 GDP 구성 비율 및 기여도

구 분	구성 비율(%)	기여도(%)
1차 산업	1.5	-4.6
2차 산업	29.1	1.7
제조업	20.6	1.8
에너지, 물	2.5	-1
건설	6.1	2.8
3차 산업	69.4	1.2
자동차 판매 및 수리, 소매	13.8	1.8
관광	2.6	-1.6
운송, 전화 서비스	6.7	2.6
은행	9.1	-3.2
보험	3.8	1.2
금융 서비스	1.7	12.3
법인 서비스	11.5	1.7
공공 행정	10.9	1.7
교육	0.6	0
건강 및 사회보험	6.1	2.7
기타 서비스	2.5	2
합 계	100	1.3

자료: Credit Suisse Economic Research(CSER).

2) 산업 성장 추세

산업별 GDP 증감률

(단위: %)

	2007	2008	2009	
			1분기	2분기
농업, 임업 및 어업	4.2	-3.2	-3.9	-0.4
광산업, 에너지 및 물공급	4.8	3.5	-1.4	-1.5
건설업	-1.0	2.6	0.9	1.1
유통업, 요식업, 교통 및 정보전파	4.0	4.8	-0.4	-0.6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등	5.9	-2.5	-3.0	-0.2
공공 행정, 사회보장, 학원, 건강, 기타 공공 및 민간 서비스	1.4	1.8	0.5	0.6

주: 2007년은 2006년 대비, 2008년은 2007년 대비 증감률 표시, 한편 2009년 각 분기별 증감률은 2008년 각 동기별 대비 증감률 표시;

자료: 스위스 경제부.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많은 산업분야에서 GDP가 감소하였다. 특히 금융위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금융업 등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2009년 들어 2분기가 되면서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업 등에서 GDP 둔화세가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광산업, 에너지 물 물공급, 유통업 및 요식업 등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세가 다소 강화되었다. 반면 건설업, 공공 행정, 사회 보장 등에서는 GDP가 다소 상승하였다.

3) 산업별 수출입 동향

품목별 수출 동향

품 목	2008		2009.2분기	
	금액(CHF백만)	증감률(%)	금액(CHF백만)	증감률(%)
총 계	206,680	4.6	88,906	-15.6
식료품	7,102	18.0	3,395	-0.5
- 치즈	(598)	(9.0)	(258)	(-5.7)
- 초콜렛	(803)	(3.7)	(304)	(-14.8)
- 음료	(1,626)	(37.5)	(789)	(-3.5)
- 커피	(1,002)	(32.7)	(539)	(13.6)
- 담배제품	(717)	(21.5)	(380)	(15.9)
섬유류	2,047	-7.7	802	-27.7
의복류	2,137	-2.5	935	-12.4
종이 및 그래픽	3,604	-1.6	1,459	-21.0
합성수지	4,255	-0.4	1,685	-24.7
화학	71,948	4.6	35,576	-5.9
- 원재료	(4,930)	(-11.8)	(1,790)	(-32.1)
- 합성수지	(2,203)	(-9.0)	(817)	(-31.8)
- 의약품, 비타민 등	(55,304)	(8.1)	(28,969)	(0.8)
- 농화학 제품	(2,154)	(12.8)	(993)	(-24.7)
- 색소	(2,134)	(-14.3)	(865)	(-25.8)
- 아로마 물질류	(1,879)	(-1.4)	(757)	(-22.4)
- 화장품 및 향수류	(1,024)	(6.7)	(481)	(-8.2)
- 기타 화학 완제품	(1,714)	(-1.3)	(651)	(-28.4)
금속류	15,277	-1.4	5,102	-37.5
- 철강	(1,995)	(6.9)	(460)	(-58.5)
- 알루미늄	(1,622)	(-11.5)	(514)	(-42.9)
- 금속제품	(10,703)	(-0.7)	(3,852)	(-31.6)
기계/전기류	43,806	1.7	16,604	-24.9
- 파워머신	(3,513)	(4.0)	(1,669)	(-6.5)
- 펌프 및 압축기	(2,799)	(6.9)	(1,174)	(-15.3)
- 냉열 기술	(1,864)	(12.2)	(695)	(-23.2)
- 금속 가공 기계	(4,880)	(0.0)	(1,439)	(-41.3)
- 공구 가공 기계	(875)	(-12.6)	(250)	(-49.8)
- 종이 및 그래픽 산업기계	(2,411)	(-7.1)	(801)	(-34.2)
- 섬유 기계	(1,637)	(-26.0)	(384)	(-59.9)
- 가정용 기기	(1,254)	(-4.5)	(519)	(-20.9)
- 사무실용 기계	(1,077)	(-8.2)	(446)	(-19.3)
- 전력생산, 전기모터	(3,145)	(9.6)	(1,383)	(-10.6)
- 텔레커뮤니케이션	(785)	(-6.1)	(337)	(-14.5)
- 전기, 전자 제품	(9,579)	(5.9)	(3,715)	(-22.3)
운송/차량류	6,095	6.5	2,595	-13.5
의료용/측정용 기기	14,910	6.7	7,092	-5.1
시계	17,030	6.7	6,104	-26.3
보석류/액세서리류	5,061	4.7	2,023	-22.0

주: 증감률은 2008년의 경우 2007년 대비, 2009.2분기는 2008.2분기 대비;

자료: 스위스 관세청.

금융위기에 따른 EU,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지역의 경기 위축으로 스위스의 대부분 수출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는 금속류(2009년: -37.5%), 섬유류(-27.7%), 시계(-26.3%), 기계/전기류(-24.9%), 합성수지(-24.7%) 등이다. 화학산업의 경우 수출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덜 하나(-5.9%), 세부 분야 중에는 원재료(-32.1%), 합성수지(-31.8%) 등이 수출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개별 품목 중 담배류(15.9%), 커피(13.6%) 등은 수출 성장세이다.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에 영향으로 감소중이다.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금속 부자재(-42.7%), 항공기(2009년: -36.5%), 화학 부자재(-30.5%) 등이다. 반면 보석류/액세서리류 등은 2009년 들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45.2%).

분야별 수입 동향

품 목	2008		2009.2분기	
	금액(CHF백만)	증감률(%)	금액(CHF백만)	증감률(%)
총 계	186,850	1.8	79,908	-16.2
원·부자재	48,592	-6.7	18,485	-27.2
- 원자재	(1,684)	(4.3)	(826)	(-7.5)
- 식료분야 부자재	(2,805)	(15.4)	(1,299)	(-8.6)
- 종이로부터의 부자재	(2,403)	(-0.9)	(976)	(-20.6)
- 인조재료로부터의 부자재	(3,581)	(2.6)	(1,519)	(-18.1)
- 화학 부자재	(12,476)	(-21.8)	(4,612)	(-30.5)
- 금속으로부터의 부자재	(11,321)	(-4.7)	(3,455)	(-42.7)
- 전기/전자 부자재	4,353	(0.8)	(1,581)	(-28.9)
에너지	17,470	32.5	6,064	-30.2
자본재	47,900	1.3	19,873	-18.2
- 에너지 생산 기계	(4,364)	(7.1)	(1,892)	(-15.0)
- 공장기계	(5,627)	(4.0)	(2,026)	(-28.0)
- 작업 기기	(11,812)	(1.7)	(4,658)	(-23.6)
- 건축 장비	(2,311)	(-0.7)	(497)	(-8.1)
- 서비스 분야 관련 기계	(13,479)	(2.8)	(1,002)	(-12.0)
- 도로 차량	(2,720)	(15.9)	(2,637)	(-24.1)
- 항공기	(1,645)	(-33.7)	(761)	(-36.5)
- 건축물	(2,380)	(-0.8)	(1,758)	(-15.7)
소비재	72,888	2.6	35,485	-4.0
- 식료품	(8,163)	(5.3)	(3,921)	(-5.2)
- 의복류	(7,394)	(1.1)	(3,315)	(-8.2)
- 의약품/위생품	(23,971)	(2.1)	(11,912)	(-2.1)
- 인쇄물	(2,173)	(-0.5)	(948)	(-12.8)
- 거주 관련 용품	(4,281)	(-2.1)	(1,902)	(-12.5)
- 가정용품	(1,857)	(-1.9)	(827)	(-11.9)
- 가정용 기기	(593)	(-1.6)	(289)	(-1.1)
- 오락 및 전자제품	(2,626)	(-3.3)	(1,039)	(-20.0)
- 스포츠 및 여가용품	(1,361)	(3.2)	(533)	(-13.2)
- 승용차	(9,090)	(1.7)	(3,817)	(-19.5)
- 보석류/액세서리류	(5,147)	(18.4)	(3,899)	(45.2)

주: 증감률은 2008년의 경우 2007년 대비, 2009년 각 분기는 2008년 각 분기 대비;

자료: 스위스 관세청.

나 주요 산업별 동향

1) 자동차 산업

스위스는 완성차 제조업체가 없어 40개사의 전문 수입업체가 4,500여개의 차종을 수입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내 자동차 등록수는 288,525대로 2007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2009년 들어 8월까지의 누계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175,772대로 2008년 8월 대비 -10.9% 감소하였다.

2009년 8월 기준, 가장 많이 등록된 차량은 VW의 Golf(4,669대)이며, 이어 Skoda의 Octavia(3,843대), Audi의 A4(2,952대), BMW의 3er Reihe(2,870대), Audi의 A3(2,472대) 등이다. 가장 많이 등록된 현대 차종으로는 i20(795대), i30(745대) 등이 있다.

한편 경기 침체 등에 기인하여 대체에너지 차량의 등록대수는 감소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5,472대가 판매되어 2007년 대비 -12.6% 감소하였으며, 2009년 들어서도 8월까지 기준 3,473대가 등록되어 2008년 8월 대비 -9.4% 감소하였다.

2) 기계/전자/금속산업

스위스에서 기계/전자/금속산업은 'SWISSMEM'이라는 동일한 산업협회에서 한 카테고리 내 취급되고 있다.

2008년 하반기에 들어 세계 경기침체가 스위스 기계/전자/금속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2008년 통틀어 주문 계약건이 2007년 대비 -17.1% 감소하였다. 특히 외국 거래선으로부터의 주문건이(-19.4%) 스위스 내 주문건보다(-7.5%)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주문 계약건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면에서는 2008년이 성과 있는 해로서 기록된다. 판매규모는 2008년에 2007년 대비 5.8% 상승하였다(해외: 5.6%, 스위스 국내: 6.3%). 그러나 2008년 4분기에는 매출규모가 2007년 4분기 대비 -3.5% 감소하였으며, 아직 공식 수치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2009년에도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예측이다.

고용인원과 관련해서는 2008년 9월말 기준 355,690명(입수가능 한 가장 최근 수치)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9월 대비 5% 증가한 규모이다.

3) 화학산업

화학산업은 스위스의 대표적 산업으로서, 90% 이상이 '전문 화학분야'에 해당된다. 상응하여 30,000 품목 이상의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 중 90%정도는 수출되고 있다. 언급 30,000 화학품목 중 상당수는 전 세계 수요가 고작 몇 톤에 불과하며, 스위스 화학제품이 전 세계 수요를 덮는 경우가 상당하다.

10대 스위스 화학-의약품체의 매출액

2008년: 1,482억 스위스 프랑	○ 지역별 분류:
	- 유럽: 598 스위스 프랑(40%), 미국: 578억 스위스 프랑(39%), 기타 지역: 281 스위스 프랑(19%), 스위스: 24억 스위스 프랑(2%)
	○ 세부 분야별 분류:
	- 의약: 736 스위스 프랑(50%), 정밀화학 및 산업용도의 특수화학제품: 389 스위스 프랑(26%), 농업 비즈니스: 143 스위스 프랑(10%), 기타: 116 스위스 프랑(8%), 비타민 및 아로마: 97 스위스 프랑(7%),

스위스 화학산업은 지난 수 세기간 특히 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기타 화학분야의 수출이 1980년부터 2008년까지 150%에서 410%로 증가한 반면, 의약품 수출(비타민 등 포함)은 100%에서 무려 1,460%까지 상승했다. 한편 의약품 분야 중에는 바이오 및 유전 공학, 중앙신경시스템 관련 의약품, 자연의약품, 의약품 원료인 식물, 약초에 대한 수요가 특히 크다.

4) 시계산업

시계산업은 스위스의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기계, 화학산업에 이은 스위스 3대 수출 산업이기도 하다(제조품에 95%가 수출). 스위스의 시계에는 고품질 및 고급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롤렉스(Rolex), 오메가(Omega) 등 명품이 많은데, 수출의 약 50%정도는 아시아, 30%는 유럽, 20%는 미주가 대상이다.

한편 스위스 시계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관련 법 규정(Regulating the Use of the name 'Swiss' for Watches)에 따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동 조건에 따르면 무브먼트 조립 및 무브먼트에 부품을 부착하는 작업이 스위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50% 이상의 부품을 스위스 제품으로 사용해야 '스위스 시계(Swiss made)'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저가 시계 생산 업체들 중에는 저임금 국가로부터 숫자판, 케이스 및 기타 주요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위스 내에서 조립 및 품질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부품사용 비중이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면 스위스 원산지 표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

5) 유통업

스위스 유통업은 매출액 기준 2008년 2007년 대비 3.6% 성장하였다. 스위스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양대 기업인 Coop 및 Migros는 모두 매출액 증가를 시현하였으나, Coop이 모든 분야에 있어 매출 성장을 기록하여 2008년 약 5%의 성장을 기록한 것과 달리 Migros는 약 1%대로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장 추세에 힘입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업확장이 추진되었다. Migros는 지난 몇 년간 Denner, Scana, Le Shop 등을, Coop의 경우 EPA, Waro, Christ, Fust 등을 인수하였다.

유통업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영세 기업들은 문을 닫는 추세이다. 상응하여 유통점수가 2000년 이래 3,878에서 2,626으로 감소하였다.

스위스 유통업의 또 다른 특징은 Coop 및 Migros로 대변되는 양대 시장구조가 독일의 디스카운터인 Lidl이 2009년 스위스 시장에 진입하고 기진출해 있던 Aldi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09년 들어 독일의 대형 디스카운터인 Aldi, Lidl 등이 스위스 시장점유 확대를 꾀하면서, Migros 및 Coop과의 가격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요

스위스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및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이외에 전세계 파트너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혹은 협상 중에 있다.

스위스는 자유무역협정을 보통 EFTA의 범주 내에서 체결하고 있으며, 일부 무역대상국들과는 협업선언(cooperation declaration)에 서명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도 한다.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1960년 1월 4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위스 등 7개국의 합의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이 합의 되었고, 1960년 5월 3일부로 발효되었다.

핀란드는 1961년 3월 27일 가입에 서명하였으나, 1986년 정식 가맹국이 되었으며, 아이슬란드는 1970년 회원 가입하였다. 그러나 영국, 덴마크(1972), 포르투갈(1985), 핀란드, 스웨덴 및 오스트리아(1994)는 유럽연합(European Community)에 가입하기 위해 유럽 자유무역연합에서 각각 탈퇴하였다. 스위스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리히텐슈타인은 유럽 자유무역연합의 준 가맹국이었으나, 1991년 이후 정식으로 가맹국이 되었다.

현재 EFTA의 가맹 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이다.

※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EFTA와 EU간의 논의에 따라 1992년 5월 1일 합의되고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EA의 결성 목적은 EFTA 가입 국가들이 EU에 가입하지 않고도 EU 단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EEA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스위스-EU 양자협정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현재 EEA 가입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EFTA 국가들과 27개 EU 가입국가들이다.

나. 목적 및 전략

스위스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추구하는 대표적 국가 중 하나로서, 통상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를 수출 시장의 접근성 제고에 두고 있다. 한편 무역/투자 자유화 증진을 위하여 WTO체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보완적 수단으로서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고 있다.

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

스위스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유 럽	- 알바니아: 협업 합의(1992.12.10) - 우크라이나: 협업 선언(2000.6.19) - 세르비아: 협업 선언(2000.12.12) - 마케도니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2.5.1) - 크로아티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2.9.1) - 러시아: 자유무역협정 검토 중
중 동	- 터키: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1992.4.1) -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1993.7.1) - 모로코: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1999.12.1) - 요르단: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2.9.1) - 튀니지: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6.6.1) - 레바논: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7.1.1) - 이집트: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7.1.27) - 알제리: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중남미	-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협업선언(2000.12.12) -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1.7.1) - 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4.12.1) -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서명(2008.11.25) - 페루: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아시아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3.1.1) -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6.9.1) - 몽고: 협업선언(2007.6.28) - 인도: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2008.1.26) - 일본: 자유무역 및 경제파트너 협정 서명(2009.2.19) - 태국: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북 미	-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서명(2008.1.26)
아프리카	- SACU(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8.5.1)

1990년대 초반에는 우선 터키(1992년), 이스라엘(1993년)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어 1993년 5월 1일 루마니아, 1993년 7월 1일 불가리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과거 동유럽 경제블럭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EFTA 국가들은 즉시 관세를 철폐한 것에 비해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수 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하면서 스위스-EU간의 양자 협정이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해당 양자 자유무역협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남동부 유럽에서는 크로아티아(2002년), 마케도니아(2002년)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발효 중이다.

1990년 중반경 이후로는 지중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적극 추진되었다. 이는 EU의 동 지역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발맞춘 것으로, 2009년 5월 기준 터키, 이스라엘, 모로코, 팔레스티나 자치구, 요르단, 레바논, 튀니지, 이집트 등 8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되었으며 알제리와는 협상 중이다.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확대되면서 스위스도 유럽 및 지중해 지역을 넘어선 파트너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9년 5월 기준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우리나라, SACU 국가들(남부 아프리카 관세 연합: 보츠와나, 남미비아, 레소토, 남아프리카 및 스와질랜드), 캐나다, 콜롬비아, GCC 국가들(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한편 인도, 태국 등과는 협상 중이다.

일본과는 2009년 2월 EU와 버금가는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선 포괄적 경제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자유무역협정 내용

자유무역협정 체결 초기에는 상품교류(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해소), 지적재산권 분야에 중점적으로 협상이 이루어 졌다. 상품교류에 있어서는 특히 산업재, 어류 및 가공 농수산물 교류에 대한 규정이 체결된 반면, 비가공 농수산물에서는 다양한 양자협정이 합의되었다.

한편 최근 몇 년 들어 체결된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및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교류,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및 정부조달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으로 발전하였다.

(자료: 스위스 경제부)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무역 동향

스위스 무역은 2006년 및 2007년에 각각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에 금융 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로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수출 및 수입이 2007년 대비 고작 4.6% 및 1.8% 성장하였다. 2009년에 들어 무역 침체는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2분기까지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무역 동향

수 출	금액(CHF 억)	증감률(%)
2006	1,775	13.1
2007	1,975	11.3
2008	2,067	4.6
1분기	502	4.0
2분기	551	11.9
3분기	523	7.5
4분기	491	-4.4
2009.1분기	442	-11.9
2009.2분기	447	-18.9

수 입	금액(CHF 억)	증감률(%)
2006	1,654	10.9
2007	1,836	11.0
2008	1,869	1.8
1분기	463	2.9
2분기	491	7.0
3분기	469	4.9
4분기	446	-7.2
2009.1분기	414	-10.7
2009.2분기	386	-21.4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스위스 관세청.

나. 품목별 수출입

1) 수출

2009년 2분기까지 모든 수출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인 시계(-26.3%), 기계/전기류(-24.9%)뿐만 아니라 금속류(-37.5%), 섬유류(-27.7%), 합성수지(-24.7%), 보석류(-22.0%), 종이 및 그래픽(-21.0%) 등에서 두자릿수의 수출 감소를 보이고 있다.

Lindt 초콜렛, Nespresso 커피 등 브랜드 제품을 앞세운 스위스 식료품, 의료용 및 측정용 기기류는 2009년 1분기만해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2분기 들어 수출의 급감으로 2009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스위스 최대 수출품목인 화학도 의약품, 의약품 재료, 비료, 화장품/향수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8년 4.6%에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9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 수출 동향

품 목	2008		2009.2분기	
	금액(CHF백만)	증감률(%)	금액(CHF백만)	증감률(%)
총 계	206,680	4.6	88,906	-15.6
식료품	7,102	18.0	3,395	-0.5
섬유류	2,047	-7.7	802	-27.7
의복류	2,137	-2.5	935	-12.4
종이 및 그래픽	3,604	-1.6	1,459	-21.0
합성수지	4,255	-0.4	1,685	-24.7
화학	71,948	4.6	35,576	-5.9
금속류	15,277	-1.4	5,102	-37.5
기계/전기류	43,806	1.7	16,604	-24.9
운송/차량류	6,095	6.5	2,595	-13.5
의료용/측정용 기기	14,910	6.7	7,092	-5.1
시계	17,030	6.7	6,104	-26.3
보석류	5,061	4.7	2,023	-22.0

주: 증감률은 2008년의 경우 2007년 대비, 2009.1,2분기는 2008.1,2분기 대비;

자료: 스위스 관세청.

2) 수입

2009년 들어 모든 품목군에서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원부자재 및 에너지 수입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수입가격의 하락에도 원인이 있다.

자본재 중에는 특히 수송 차량, 공장용 기계, 공구, 측정 기기 등에서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병원용 기기는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소비재의 경우 오락기기, 승용차, 스포츠 및 여가용품, 인쇄기기 등에서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 반면 보석/액세서리류에서는 2009년 2분기 기준, 2008년 2분기 대비 수입이 무려 45.2% 증가하였다.

분야별 수입 동향

품 목	2008		2009.2분기	
	금액(CHF백만)	증감률(%)	금액(CHF백만)	증감률(%)
총 계	186,850	1.8	79,908	-16.2
원부자재	48,592	-6.7	18,485	-27.2
에너지	17,470	32.5	6,064	-30.2
자본재	47,900	1.3	19,873	-18.2
소비재	72,888	2.6	35,485	-4.0

주: 증감률은 2008년의 경우 2007년 대비, 2009.1,2분기는 2008.1,2분기 대비;
자료: 스위스 관세청.

다. 국가별 수출입

1) 수출

주요 수출대상국별 수출 동향

수출 대상국	2008		2009.2분기	
	금액(CHF백만)	증감률(%)	금액(CHF백만)	증감률(%)
총 계	206,680	4.6	88,906	-15.6
독 일	41,960	2.0	17,388	-19.9
미 국	19,465	5.8	8,388	-10.6
이탈리아	18,240	4.1	8,227	-15.0
프랑스	17,824	7.0	7,502	-17.7
영 국	9,724	3.3	4,247	-15.2
스페인	7,333	-2.6	3,283	-19.8
일 본	6,284	1.9	3,432	12.9
네덜란드	6,266	2.3	2,754	-14.9
오스트리아	6,030	-3.6	2,674	-11.4
중 국	5,529	15.5	2,458	-12.3

주: 증감률은 2008년의 경우 2007년 대비, 2009.1,2분기는 2008.1,2분기 대비;
자료: 스위스 관세청.

스위스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인근 유럽국가 및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며, 2009년 들어 수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일본을 대상으로는 의약품의 호조로 2009년 2분기까지 2008년 2분기 대비 12.9% 증가하였다. 또한 캐나다로의 수출도 2009년 6월 기준 2008년 6월까지 대비 0.3% 상승하였다.

개도국 및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분기 기준 2008년 2분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보이는 대상국은 우크라이나(-55.9%), 리비아(-47.4%), 타이완(-36.7%), 러시아(-34.2%), 터키(-32.7%) 등이다. 또한 2009년 1분기만해도 루마니아(5%), 브라질(2%)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2분기 들어서는 각각 -8.9%, -17.4% 감소하였다.

2) 수입

주요 수입대상국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은 2009년 들어 총체적으로 두자릿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선진국 및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추세이다. 2009년 2분기 기준 2008년 2분기 대비 수입 증가 대상국은 호주(55.1%), 이란(32.0%), 그리스(30.3%), 아랍 에미레이트(29.7%), 싱가포르(9.4%), 중국(7.8%) 등이다.

주요 수입대상국별 수입 동향

수입 대상국	2008		2009.2분기	
	금액(CHF백만)	증감률(%)	금액(CHF백만)	증감률(%)
총 계	186,850	1.8	79,908	-16.2
독 일	64,815	4.3	26,368	-19.9
이탈리아	21,246	3.2	8,821	-20.0
프랑스	18,062	1.1	7,763	-15.2
미 국	9,448	0.2	4,244	-11.3
네덜란드	9,000	2.9	3,812	-13.2
오스트리아	7,906	-1.8	3,335	-16.1
영 국	5,994	-15.3	2,580	-21.2
벨기에	5,685	6.6	2,159	-23.2
중 국	4,978	4.5	2,530	7.8
아일랜드	4,915	-18.4	2,378	-6.7

주: 증감률은 2008년의 경우 2007년 대비, 2009.1,2분기는 2008.1,2분기 대비;

자료: 스위스 관세청.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스위스 무역동향

우리나라와 스위스간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대스위스 수출을 기준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지속 감소 중이다. 우리 나라와 스위스를 포함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서명국)간의 FTA가 2006년 9월 발효되어 특히 공산품의 경우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 점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FTA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우선 스위스의 기존 관세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이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등의 해외 생산 및 현지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들어 우리나라의 대 스위스 수출은 금, 그림 등의 특수재 위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의 기존 주력 수출품목은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스위스로부터의 수입도 2008년 이후 감소추세이나, 금 및 백금 수입 급감이 주 원인을 형성하고 있다. 기타 수입 주요 품목은 수입 증가 및 감소가 혼재하고 있다.

한-스위스 무역동향

(단위: 백만불)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01	432	850	-418
2002	449	1,001	-553
2003	433	1,442	-1,009
2004	514	1,211	-697
2005	576	1,168	-592
2006	840	1,319	-479
2007	484	1,991	-1,507
2008	399	1,908	-1,509
2009.2분기	254	965	-711

자료: KITA.

나. 주요 수출입 품목

1) 우리나라의 대스위스 품목별 수출동향

우리나라의 대(對) 스위스 주요 수출품목(2009.8월 기준)

(단위: 백만불)

	품 목	2008	2009.8월
1	금	116 (208,648.2%)	89 (458.5%)
2	무선전화기	63 (-18.6%)	47 (33.2%)
3	그림	13 (-56.3%)	21 (64.2%)
4	승용차	105 (-39.0%)	19 (-78.2%)
5	타이어	16 (-4.3%)	7 (-45.7%)
6	기타 정밀 화학원료	7 (-16.9%)	6 (-16.9%)
7	인쇄회로	6 (10.8%)	3 (-25.4%)
8	밸브	3 (54.7%)	2 (47.3%)
9	기타 플라스틱 제품	5 (26.6%)	2 (-10.3%)
10	시계	3 (23.0%)	2 (-4.9%)
	총 계	399 (-17.5%)	254 (-16.3%)

주: () 전년 혹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처: KITA(MTI 4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 스위스 최대 수출품목이던 승용차의 수출은 감소세이나, 무선 전화기 수출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2008년,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2009년 8월까지의 2008년 동기 대비 무려 -78.2%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스위스 자동차 수입협회(Auto-Schweiz)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승용차)는 2009년 8월 기준 3,809대가 등록되어 2008년 동기 대비 -8.3%만이 감소하였으며 시장 점유율은 2.1%(2008년)에서 2.2%(2009년)로 상승하였다.

한편, 현대차 등록수 감소는 스위스 경기 침체에 기인한 승용차 전반에 걸친 판매부진에 기인한다(2009년 8월 기준, 스위스 내 등록차량수: 51,192대(2008년 동기 대비 -19.6%)). 또한 인도, 미국, 체코 등 해외 현지 생산 및 현지 직수출 증가도 국내로부터의 수출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대차의 주요 판매모델은 i20(2009년 6월 누계 기준: 795대 등록), i30(745대)이며, 기아차의 경우 시드(694대) 등이다(비교: 스위스 내 최대 판매 모델은 2008년에 이어 폭스 바겐의 골프임(4,669대 등록)).

스위스 승용차시장에서 제조사별 등록 현황(2009.8월 기준)

(단위: %)

업체명	등록대수(시장 점유율)	2009.8월 기준 증감률
현 대	3,809 (2.2)	-8.3
기 아	1,958 (1.1)	-24.6
폭스바겐	19,546 (11.1)	-3.5
아우디	11,793 (6.7)	8.0
BMW	9,051 (5.1)	-17.4
도요타	8,924 (5.1)	-16.9
메르세데스	7,739 (4.4)	-19.1
총 계	51,192	19.6

주: ()는 전년 혹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처: Auto-Schweiz.

무선전화기(핸드폰) 수출은 2009년 들어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2009년 8월 기준 2008년 동기 대비 33.2% 증가), 우리 제조사들의 스위스 현지 마케팅 활동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8년 우리나라의 3, 4위 수출품목이던 금 및 그림은 2009년 8월 기준 1, 3위 수출품목으로 등극하였다. 금수출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다소 부진했던 금수출도 2009년 증가세를 타고 있다. 공산품 수출이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특수재 수출로의 집중은 고부가 산업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의 입지를 감안할 때 드문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스위스 경제 침체에 기인한 기업 및 민간 수요 감소로 우리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대(對) 스위스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금, 그림 등의 특수재 수출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측면도 있다.

2) 우리나라의 대(對) 스위스 품목별 수입동향

우리나라의 대(對) 스위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불)

	품 목	2008	2009.8월
1	의약품	244 (19.2%)	147 (-11.6%)
2	시계	136 (28.5%)	102 (15.2%)
3	원동기	79 (20.2%)	66 (25.5%)
4	펌프	98 (101.0%)	56 (22.3%)
5	농약	46 (33.7%)	31 (21.5%)
6	금속성형가공기계	7 (17.1%)	28 (421.1%)
7	의료용 기기	45 (2.4%)	28 (-13.0%)
8	반도체제 조용장비	52 (108.4%)	26 (-35.2%)
9	기타 정밀화학원료	43 (-7.4%)	23 (-30.5%)
10	금속절삭가공기계	75 (2.6%)	22 (-61.5%)
	총 계	1,908 (-4.2%)	965 (-27.8%)

주: ()는 전년 혹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처: KITA(MTI 4 기준).

2009년 들어 최대 수입품목인 의약품 및 금/백금 수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對) 스위스 수입감소에 주요인을 형성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품목 전반에 걸쳐 수입이 감소하여 2009년 8월 기준 2008년 동기 대비 -11.6% 감소하였다. 특히 금 및 백금 수입은 2009년 8월 기준 2008년 동기 대비 각각 -97.2% 및 -93.5%나 감소하였다(금 및 백금은 2008년 각각 우리나라의 대(對) 스위스 2위 및 5위 수입품목이었으나 2009년 8월에는 48위 및 38위에 불과함).

한편,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에는 2009년 수입이 두 자릿수로 증가한 품목도 다수로서, 금속성형가공기계(2009년 8월 기준 2008년 동기 대비 421.1%), 원동기(25.5%), 펌프(22.3%), 농약(21.5%), 시계(15.2%) 등이 그 예이다.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제한

스위스는 1995년 WTO 설립 이후 수입제한 조건을 지속 완화하고 있다. 한 예로 WTO 농산물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에 따라 온대 지역산 식품류와 농산물에 대해 적용하던 매우 까다로운 3단계 수입 허가제도(three phase system)를 관세화(tariffication) 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수입이 제한되어 왔던 육류, 사과, 배, 채소, 포도주 등 총 28개 품목에 대해 관세 할당제 (Tariff Quota)가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스위스의 수입허가제도는 비자동허가(Non-automatic licensing)와 자동허가(Automatic licensing)로 구분되는데, 해당 28개 품목(HS 8단위 기준 으로는 233개)은 비 자동 허가 대상이다. 우리나라 수출관심품목인 사과와 배의 경우 연간 관세 할당량은 15,800톤이며 동 할당 한도 내에서는 100Kg당 포장방식에 따라 2~5 스위스 프랑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할당 초과 수입 시에는 100Kg당 171 스위스 프랑의 무거운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수입통제 대상이 되는 제품군은 국가안전(방사선물질, 무기, 폭약), 필수비축물자(비료, 항생제, 유류, 비누), 보건위생(방사선물질, 마약), 환경보호(유해폐기물, 야생동물), 칸톤의 독점물품(소금), 포장규제(PVC병), 식품위생(채소류), 독극물, 동식물 위생관련 품목 등이다.

일부 필수품(곡식류 및 식품류, 산업원자재, 연료 또는 탄화수소 등)의 수입상은 비상시의 용도를 위해 최소한의 일정 비축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비축을 위하여 비용이 추가 되는 경우 수입상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스위스는 관세법 제7조에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과 일치하고 있다. 한편 2009년 5월 기준 반덤핑 관세 혹은 상계 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없으며 관련 조사는 스위스 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관세부과 여부는 각료회의에서 결정한다.

잠정관세인상(관세법 제7조)뿐만 아니라 잠정수입금지조치(대외경제연방법 제1조)까지도 발동할 수 있으나 이들 조치는 사후 6개월 이내에 연방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의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 또는 종료되어야 한다.

다. 수입부과금

커피, 차, 코코아 및 쌀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최저 재고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입 부과금(import charges)이 시행되고 있다. 커피에 대한 수입부과금은 kg당 0.18 스위스 프랑이다.

라. 표준 및 기타 기술 장벽

1) 기술규정 인증

스위스는 EU를 포함한 전 유럽경제지역(EEA) 가입국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인증인 CE나 일본 산업표준인 JIS, 우리나라 표준인 K과 같이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른 임의 또는 의무적 테스트와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제반 기술규격에 있어서는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해 옴으로써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 이상이 EU 규격과 동일시 되고 있다. 특히 CE 지침 중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분야에 있어서는 스위스의 지침이 EU와 동일하다.

한편 2002년 6월부터 발효된 스위스와 EU간 인증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기술표준 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 자국규정에 의해 인증을 취득하여 상대국에 유통 및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수출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은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에서 운영하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 인증을 받으면 된다.

스위스는 해당 SEV 규격 이외에도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 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해서는 1995년에 EU의 기술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하였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관리국(IKS)의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2) 위생관련 검사제도

위생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스위스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분석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상품 라벨링

유전자변형상품(GMO)에 대해서는 1996년 10월부터 유전자공학생산 농산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규칙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마. 기타 수입규제

명시적 수입규제는 아니나 수입 시 적용되는 세금으로 석유류세(Mineraloelsteuer), 휘발성 유기화합물세(Lenkungsabgabe auf fluechtigen organischen Verbindungen), 맥주세(Biersteuer), 화석연료에 대해 적용되는 이산화탄소세(CO₂ Abgabe) 등이 있다.

석유류세(Mineraloelsteuer)는 제품 및 제품의 용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납 포함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74.47 라펜, 디젤류에 대해 리터당 75.87 라펜, 난방용 기름에 대해 리터당 0.3 라펜이 적용된다(참고: 1 스위스 프랑 = 100 라펜; 1 스위스 프랑은 1,200-1,400원선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세(Lenkungsabgabe auf fluechtigen organischen Verbindungen)는 페인트, 청소용 세제 등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적용된다. 스위스 관세청은 해당 화합물군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동 세금에 적용되는 화합물군을 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에 해당 제품/물질을 수출 희망하는 업체들은 스위스 관세청에 문의하여 동 세금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맥주세는 맥주의 강도에 따라 세율이 다양하다. 10도까지는 헥토리터당 16.88 스위스 프랑, 10.1-14도까지는 헥토리터당 25.32 스위스 프랑, 14.1도부터는 헥토리터당 33.76 스위스 프랑이 적용된다.

이산화탄소세(CO₂ Abgabe)는 난방용 및 전력용으로 사용되는 유류,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적용된다. 세율은 2008년의 경우 CO₂ 톤당 12 스위스 프랑, 난방용 기름은 15도 기준 1,000리터당 31.80 스위스 프랑, 가스는 1,000kg당 30.70 스위스 프랑이었다. 2009년에 들어 CO₂ 톤당 24 스위스 프랑으로 인상되었으며, CO₂ 감축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2010년부터는 CO₂ 톤당 36 스위스 프랑으로 세율이 지속 상승될 예정이다.

자료: 주스위스한국대사관, 스위스 관세청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0 년 이후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된 반덤핑 사례 등 수입규제는 없다. 더욱이 2006 년 9 월 1 일부로 우리나라와 스위스를 포함한 EFTA 국가간 FTA 가 발효되고 있어 수입관세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특히 공산품의 경우 무관세).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현존 가입국임(자세 내용: 국가정보 스위스 중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참조).

<참고>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2006년 9월 1일 발효된 한-EFTA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 10,114개 품목(기본농산물 제외) 중 10,019 개(99.1%) 품목을 양허하고 스위스 등 EFTA 국가들은 전 품목에 대해 양허하였으며 가공농산물 제외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완전 철폐하였다.

주요 양허 내용

구 분		우리나라의 EFTA 에 대한 양허	EFTA 의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
F T A 본 협 정	전체	○ 양허율: 99.1%, 즉시철폐: 86.3%	○ 양허율: 100%
	공산품	○ 양허율: 100%, 즉시철폐: 91.1% ○ 섬유판 등 목재, 보일러, 유기·무기 화학제품, 차량부품, 화장품, 의약품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7년 관세 철폐	○ 양허율: 100%, 즉시 철폐: 100%
	수산물	○ 양허율: 88.4%, 즉시철폐: 27.1% ○ 민감품목은 쿼터설정(냉동고등어) 또는 양허 제외(김, 미역 등 해조류) ○ 주요 품목 5년 내지 10년 관세철폐 ○ 넙치 등 활어류 및 민어(냉동), 홍어(냉동) 등 32개 품목 7년 재검토	
	가공 농산물	○ 양허율: 84.2%, 즉시철폐: 15.8% ○ 인삼제품 등 민감품목 제외 ○ 주류, 커피 등은 10년 관세철폐 ○ 빵, 과자, 초콜릿, 껌 등 가공 식품류는 40~50% 관세인하	○ 양허율: 100%, 즉시 철폐: 35~55% ○ 라면의 경우 스위스는 50%, 노르웨이는 80% 정도 관세 감축 효과
3 개 농 업 협 정	기본 농산물	○ 양허율: 스위스 20.9%, 노르웨이 35.8%, 아이슬란드 50.8% ○ 육류, 낙농제품, 양념류 등 민감품목 대부분 양허 제외 ○ 치즈, 포도주, 양고기 등 일부 품목은 점진적으로 관세철폐	○ 양허율: 스위스 51%, 노르웨이 61%, 아이슬란드 67% ○ 김치, 소주, 쌀발효주, 사과, 배 등을 양허

『 자료 』 외교통상부.

우리나라는 공산품의 경우 100% 양허하나 29 개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해 3 년 내 재검토 하며, HS 6 단위 기준 267 개 품목에 대해서는 EFTA 의 역외가공 인정요건(역외가공 부가가치가 제품가격의 10% 미만일 것)을 완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례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한-EFTA FTA 품목별 관세철폐 현황

구 분	전품목 (기본 농산물 제외)	공산품 (임산물 포함)	수산물	가공농산물
즉시철폐(A)	8,726(86.3%)	8,568(91.1%)	110(27.1%)	48(15.8%)
3년철폐(B1)	388(3.8%)	381(4.1%)	7(1.7%)	-
5년철폐(B2)	395(3.9%)	294(3.1%)	101(24.9%)	-
7년철폐(B3)	138(1.4%)	132(1.4%)	6(1.5%)	-
10년철폐(B4)	123(1.2%)	-	102(25.1%)	21(6.9%)
관세인하(10~50%)	187(1.9%)	-	-	187(61.5%)
TRQ	1(0.0%)	-	1(0.2%)	-
향후 재검토(R)	61(0.6%)	29(0.3%)	32(7.9%)	-
양허 계	10,019(99.1%)	9,404(100%)	359(88.4%)	256(84.2%)
양허제외(E)	95(0.9%)	-	47(11.6%)	48(15.8%)
총계	10,114	9,404(100%)	406(100%)	304(100%)

『 자료 』 외교통상부.

수산물은 전체 407 개 품목 중 김, 미역 등 해조류 47 개 품목을 제외한 359 개 품목을 양허하고, 주요 품목은 5 년 또는 10 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였다. 냉동고등어의 경우 연간

500 톤에 대해서만 관세를 양허하는 관세할당쿼터(TRQ)를 적용하였고 납치 등 활어류 및 민어(냉동), 홍어(냉동)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7년 내 재검토 할 예정이다.

기본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각 EFTA 국가간 별도의 양자 농산물협정을 체결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우리 농산물의 5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양허하기로 하였고 김치, 쌀 발효주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사과 및 배에 대해서는 쿼터 및 계절관세를 통해 일부 양허하기로 하였다.

EFTA의 역외가공 인정요건

구분	한·싱 FTA	한·EFTA FTA
지역제한	개성공단 및 한반도	제한 없음
대상물품	○ HS 6단위 4,625개 품목 ○ 공산품 전 품목(일부 품목 제외)	○ HS 6단위 267개 품목 ○ 62류(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외 의류) ○ 61류(편물 의류와 그 부속품) ○ 91류(시계 및 부품) ○ 84류(원자로, 보일러 등) ○ 85류(전기기기 등) ○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인정요건	○ 협정상의 원산지 요건 충족 ○ 직접운송	○ 비원산지 재료가격 40% 이하 ○ 총 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가격 60% 이상 ○ 협정상 원산지 요건 충족 ○ 직접운송

『자료』 외교통상부.

5.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개황

스위스 관세제도는 헌법과 관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총 6,863개의 관세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관세율은 MFN 관세율, EC 및 EFTA 관세율, 개도국 특혜 관세율, 최저 개도국 특혜 관세율로 구분 적용되고 있다.

1988년부터 HS 방식에 의한 품목분류 체제를 도입하여 총 8단위 세번을 운영하고 있다. 앞의 6자리는 HS 6단위 세번이며 끝의 두 자리는 스위스 자체 설정 2단위 세번이다.

스위스는 선진공업국 중 유일하게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는 동일한 과세대상 품목군에 있어 고가의 제품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값싼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율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1) 일반특혜 관세제도

개도국에 적용되는 일반 특혜 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당초 1972년 도입 되었으며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2009년 5월 기준).

일반 특혜 관세제도(GSP)의 원산지 규정은 당초 UNCTAD에서 정한 원칙에 준하여 수출국 내의 완전 생산품 또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수입 원자재 등 사용 비중이 50% 이하 또는 수입 원자재와 완제품의 HS 관세분류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을 적용하며, 입증 자료로서 Form A <우편일 경우는 APR> 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6년 7월부터 공여국 원자재 기준이 추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스위스 내 원자재, 반제품을 사용한 개도국 수출상품의 가공도 산출 시 해당 원자재, 반제품 사용분을 합산함으로써 개도국의 GSP 수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단 HS 25-97의 공산품에만 적용).

스위스는 1981년 제정된 일반 특혜관세 연방법(Zollpraeferenzen-beschluss)에 따라 우리나라,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키프로스, 아랍에미리트 연방, 브루나이, 쿠웨이트, 카타르, 바하마, 버뮤다, 카이만 제도, 포클랜드 제도 등 13개국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남아공, 에리트리아, 가자 및 서안지구, 미크로네시아 연맹과 CIS의 일원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트루메니스탄 공화국 등을 GSP 수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2) 관세법 개정 주요 내용(2007년 7월 발효; 2009년 5월 기준 지속 유효)

1925년 설정된 스위스 관세법은 2006년 11월에 완전 개정되어 EU 관세법에 유사해졌다. 이에 따라 관세평가 절차가 범 유럽적으로 호환 가능해졌고 적용 대상자의 권리도 확대되었다. 동 개정 관세법은 2007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세신고 형태

여행객 또는 국경선 경계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관세신고는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나, 개정법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신고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관세 할당제가 적용 되는 농산물은 반드시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 관세신고 내용 정정 및 철회

구 관세법에서는 수입관세 의무가 발생한 후 세액 정정은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누락된 특혜관세는 정정이 불가능했다. 반면 개정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 의무자가 적용관세의 부적합을 증빙하는 경우 관세의 정정이 가능해 졌다. 한편 관세 정정은 수입물품의 수입통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해당 품목의 형태 또는 소재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이의신청만 가능하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농산물

농산물이 자국 내 일시적인 수급부족으로 수입 되는 경우 자국 내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심하게 엇갈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관세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농산물이 관세 할당제에 대상이 되며 관세할당 기간에 수입된 제품으로 관세할당 외 기간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수입관세에 차액이 발생한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수입관세 신고를 하고 수입관세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3) 관세 조회

스위스 연방관세청(Eidgenoessisches Finanzdepartement)에서는 제품의 수입관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주소는 ' www.tares.ch ' 이며,

수입국 및 HS 코드로 수입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동 사이트는 독어, 영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 등 4개 국어로 제공된다.

나. 원산지 규정

스위스의 원산지 규정은 3가지로서 EU/EFTA 특혜 원산지 규정과, 일반 특혜 원산지 규정 및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구분된다.

EU/EFTA 특혜 원산지 규정과 일반 특혜 원산지 규정은 궁극적으로 동일하다. 수출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품목이거나 품목에 따라 50%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거나 HS 세번 변경(4단위)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원산지로 인정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EU/EFTA 특혜 원산지 기준은 1994년 1월 자유화되어 제 3국의 반제품 사용한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학제품(HS 28-29류)의 경우 제 3국 원재료를 40%까지, 플라스틱 제품(HS 39류)의 경우는 25%까지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일반 특혜 원산지 규정에서는 블록경제 내에서의 원자재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원산지 누적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으며 ASEAN 국가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수출국에서의 완전 생산품이거나 본질적 변형(sufficient transformation)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 3국 원산지 재료가 수출 가격의 50% 이하이거나 HS 4단위 세번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원자재와 완제품 간의 본질적 변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스위스 인증체제 개요

스위스 표준화 기구인 SNV(The Swiss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민간 조직으로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기관으로 스위스 시장 유통 제품에 대한 인증 전반(즉 법규, 지침, 표준, 관련 절차 등)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 등에서 스위스의 규격, 인증 관련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최저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식품첨가물, 양념류, 품질, 가공·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스위스 보건부: www.bag.admin.ch). 스위스 국내 생산 및 수입 의약품의 스위스 국내 시판을 위해서는 범 칸톤 의약품관리국(IKS)에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IKS" 허가필 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은 스위스 전자/전기 기술 협회(SEV)의 검사 인증 제도가 있다. 인증의무 대상 품목의 경우 SEV 인증 없이 판매, 유통,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 국내반입, 판매 시 연방 전기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스위스 내 표준화/인증 관련 협회

- SNV(Swiss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www.snv.ch (영/독/불어)
 - 스위스 표준 협회
- SICTA(Swi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ww.sicta.ch
 - 스위스 IT 분야 협회
- electrosuisse(SEV Association for Electrical Engineering, Power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www.electrosuisse.ch
 - 스위스 전자/전기 기술 협회
- SWISSMEM(Swiss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industries): www.swissmem.ch
 - 스위스 기계, 전기 협회
- sia(Swiss association of engineers and architects): www.sia.ch
 - 스위스 건축, 토목, 환경 관련 전문가를 위한 협회
- VSS(Swiss association of road and transport experts): www.vss.ch
 - 스위스 도시계획, 건설, 교통기반 및 시스템 관련 협회
- NIHS(Federation of Swiss Watch Industry FH): www.nihs.ch
 - 스위스 시계산업 협회

7. 지적재산권

스위스는 ‘WIPO Convention’,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Agreement’,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등을 포함한 여러 국제 지적소유권 보호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스위스는 고도로 발달된 첨단 기술분야를 보유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는 국제 규범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 취리히 KBC에서 2000년 이후 매년 지적재산권 침해/피해 사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09년 5월 기준 문제가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위스 지적재산권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특허권

특허권은 기술적 발견/발명에 적용되며, 최대 20년간 유효하다. 특허권 보유자는 동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적 발견/발명을 허가 없이 이용, 제조, 판매, 유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특허신청에는 200 스위스 프랑, 특허검사에 500 스위스 프랑이 소요된다. 특허신청 이후 5년째부터는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5년째 및 6년째는 100 스위스 프랑을, 7년째 및 8년째는 200 스위스 프랑을, 9년째부터는 310 스위스 프랑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스위스 연방 지적재산권 연구소(Eidgenoessisches Institut fuer Geistiges Eigentum, IGE)는 특허신청을 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 있다.

- 발견/발명품에 대해 비밀 유지: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면 해당 제품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제품이어야 한다.
- 유사 발견/발명품의 기특허신청 확인: 확인 가능한 사이트는 ,www.espacenet.com'이다.
- 특허권 전문 변호사 채용: 특허권의 정확한 신청은 전문지식을 요하므로 관련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상표권

상표권은 한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와 구분해 주는 '표시'의 보호에 근거한다. 여기서 '표시'는 단어, 알파벳의 합성, 수의 합성 등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한편 상표 등록 시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이후 수시로 연장 가능하다.

10년간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550 스위스 프랑을 지불해야 한다. 신청된 상표는 10일 내 검사되며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등록된다. 한편 상표등록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상표등록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상표등록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 상표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두드러진 특징을 지닌 '표시'를 선택한다.
- 유사 표시의 기상표 등록을 확인한다.
- 상표권이 유효한 분야를 유의하여 선택한다(모든 분야에 유효한 상표권은 없으므로 상표권 신청을 희망하는 분야를 명확히 설정)
- 등록 후 5년 내 상표를 활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말소된다.

다. 디자인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 대비 근본적으로 구분될 경우 신규로 간주되고 보호되며, 최대 15년간(5년씩 연속 3회) 보호받을 수 있다.

라. 저작권

예술, 문학, 음악, 영화 등에 있어 창조물/창조품을 보호하는 저작권은 권리 보유자에게 자신의 작품이 언제, 어디서 활용되어도 될 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한편 저작권 보유자는 작품을 창조한 사람이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가 해당 저작권을 활용하고자

하면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시는 법률상 프로그램 개발자의 고용주가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 받게 된다. 한편 여러 명이 동시에 작품을 창조하였을 경우 저작권은 공동 소유가 된다.

저작권의 대상은 등록 없이 완성된 경우 바로 보호되며, 통상 70년간 유효하다.

마.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 스위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여 취득될 수 있다.

- 스위스 연방 지적재산권 연구소(Eidgenoessisches Institut fuer Geistiges Eigentum, IGE)
 - 1988년 특허, 상표(인터넷, e-trade 포함), 디자인,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 지원 및 법적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관련 업무별 3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www.ige.ch (독/불/이탈리아/영어 제공)
-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 관련 연구소(The registry of the 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www.swissreg.ch
-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정보(Patent and technology information): www.espacenet.ch
-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Now Accessible Online for All): www.ip4all.ch

8. 통관/운송

가. 통관

1) 통관절차 개황

일반적으로 스위스 세관의 통관 절차는 간단하다. 국경지역 혹은 국제공항의 보세구역에는 세관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당해 물품이 도착하여 통관 시 세관원이 일일이 통관 물품을 검사하면서 통관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업자 혹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통관 운송을 대행하는 업자가 세관에 통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후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면 된다.

2) 수입신고

수입업자는 세관신청서와 함께 인보이스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인보이스에는 통관 물품명세, 상품 인도가격과 보험을 포함한 각종 비용, 상품 순수 중량 및 총 중량, 원산지가 명기되어야 한다.

3) 물품검사

수입이 규제되는 식품이나 의약품은 제외한 일반제품의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가 대부분이며, 일일이 물품검사를 시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관은 국민보건 혹은 안보상의 목적 등 특

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제품을 일단 통관 후 샘플을 관련 기관에 보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수입된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조사분석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강제 반송시키도록 하고 있다.

4) 세관제출서류 및 통관절차

- 제출서류: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중량세부내역서, 원산지증명서
- 통관절차
 - 통관서류 제출
 - 적하목록 제출
 - 물품 검사 및 심사
 - 물품 무게 측정
 - 통관비용 측정
 - 통관증명서 발급
 - 통관비용 지불
 - 영수증 발급
 - 물품 반출

나. 운송

1) 국제공항 및 국제항

스위스에는 취리히(www.zurich-airport.com), 제네바(www.gva.ch/en), 바젤(www.euroairport.com) 등 3곳에 국제공항이 있다.

한편 스위스는 내륙국으로서 국제항구가 없으며, 바젤이 라인강에서 로테트담까지 잇는 유일한 내수로 항구이다(참조: www.portofbasel.ch).

☐ 바젤항과 관련된 선박회사, 하역업체, 창고업체, 항만용역업 등에 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업체명: Rheinschiffahrtsgesellschaft Basel
- 주 소: Hochbergerstrasse 160, Postfach, 4019 Basel, Switzerland
- 전 화: +41-61-639-9595
- 팩 스: +41-61-631-4594
- e-메일: info@portof.ch

2) 운송비 비교

2009년 5월 기준 운송수단별 운송가격은 tkm(톤킬로미터)당 아래와 같다(출처: 바젤항구(www.portofbasel.ch)).

- 선박 이용: 1.9 라펜
- 철도 이용: 9.5 라펜
- 고속도로 이용: 15.8 라펜
- ※ 1 스위스 프랑 = 100라펜

3) 주요 운송업체 리스트

- Kuehne & Nagel International AG
 - 주소: Feldeggstrasse 5, 8152 Glattbrugg, Switzerland
 - 전화: +41-44-8668100, 팩스: +41-44-8668109
 - 홈페이지: www.kn-portal.com
- Panalpina Welttransport(Holding) AG
 - 주소: Eichstrasse 50, 8152 Glattbrugg, Switzerland
 - 전화: +41-44-8294111, 팩스: +41-44-8294101
 - 홈페이지: www.panalpina.com/www/che/en/home.html
- Gondrand AG
 - 주소: Uferstrasse 70, 4019 Basel, Switzerland
 - 전화: +41-61-285-33-33, 팩스: +41-61-281-41-33
 - 홈페이지: www.gondrand.ch
- Fracht AG
 - 주소: Birsigstrasse 79, 4011 Basel, Switzerland
 - 전화: +41-61-287-95-55, 팩스: +41-61-287-97-50
 - 홈페이지: www.fracht.com
- M+R Spedag Gruppe
 - 주소: Kriegackerstr. 91, 4132 Muttens BL, Switzerland
 - 전화: +41-58-677-77-77, 팩스: +41-58-677-77-76
 - 홈페이지: www.mrspedag.com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매력도

스위스는 유럽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자유 시장경제, 정부정책의 높은 신뢰성,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한 다수의 국제기구 본부 위치 및 국제성,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 및 호의적인 사업여건 등에 기인하여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부로 각광받고 있다.

금융, 통신, 우편, 교통, 전기, 수도시설 등 기본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물가 상승률은 유럽의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직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어 현지 인력은 유럽 내 최고 수준의 노동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다.

첨단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소비재의 경우 고물가, 높은 인건비 때문에 투자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첨단 기술 활용 분야나 숙련된 전문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스위스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스위스는 인구가 770만에 불과한 소규모 국가이나 물리, 화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33명 이상의 노벨상을 배출한 과학기술의 나라이다. 취리히와 로잔에 있는 스위스 연방공대는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리히 대학, 상갈렌 대학을 비롯한 전문 교육기관에서는 다수의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나. 투자지로서의 장점

1) 잘 정비된 인프라

스위스는 사회 기본 인프라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서, World Economic Forum에 의해 인프라가 가장 발전된 국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사회 인프라의 질

- * 만점: 7점
- **스위스(6.7)**, 싱가포르(6.6), 독일(6.6), 프랑스(6.5), 오스트리아(6.3), 미국(6.1), 벨기에(5.9), 네덜란드(5.8), 영국(5.5), 스페인(5.3), 슬로베니아(4.6), 헝가리(4.2), 아일랜드(3.9), 이탈리아(3.5)

출처: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Yearbook 2007-08.

2) 기술 발전

스위스는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선도국가로서 컴퓨터 및 브로드밴드 보급률 등에서 매우 앞서가고 있다.

기술 발전: 100명당 컴퓨터 수

- * 만점: 100점
- **스위스(86.18)**, 네덜란드(85.55), 영국(76.52), 미국(76.22), 싱가포르(68.02), 오스트리아(61.12), 독일(60.47), 프랑스(57.86), 아일랜드(52.99), 슬로베니아(41.08), 벨기에(37.62), 이탈리아(36.99), 스페인(28.11), 헝가리(14.90)

출처: World Economic Forum: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7-2008.

3) 경쟁력

스위스는 잘 정비된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노동 생산성 면에서도 세계 선두국가 중 하나이다.

교육제도의 질

- * 만점: 7점
- 싱가포르(6), **스위스(5.8)**, 벨기에(5.7), 아일랜드(5.6), 오스트리아(5.2), 네덜란드(5.2), 미국(5.1), 독일(4.9), 프랑스(4.8), 영국(4.6), 슬로베니아(4.1), 스페인(3.8), 헝가리(3.6), 이탈리아(3.4)

출처: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08.

생산성: 1인 고용인당 GDP

- * 단위: 미불
- 아일랜드(121,753), 벨기에(104,064), 프랑스(99,693), **스위스(96,003)**, 영국(94,849), 미국(94,774), 오스트리아(92,955), 네덜란드(91,336), 이탈리아(90,538), 독일(83,460), 스페인(70,592), 싱가포르(59,085), 슬로베니아(44,790), 헝가리(35,156)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풍부한 숙련된 노동력과 정책의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에서도 세계 선도위치에 있다.

WFT 국가경쟁력 순위

미국(1위), **스위스(2위)**, 독일(5위), 영국(9위), 네덜란드(10위), 오스트리아(15위), 프랑스(18위), 벨기에(20위), 아일랜드(22위), 스페인(29위), 슬로베니아(39위)

출처: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08

4) 생산성

스위스 제품시장 및 기업의 효율성도 최고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제품 시장 효율성

* 만점: 7점

- 싱가포르(5.76), 아일랜드(5.41), 오스트리아(5.41), **스위스(5.39)**, 네덜란드(5.37), 미국(5.32), 영국(5.30), 독일(5.29), 벨기에(5.20), 프랑스(5.03), 슬로베니아(4.63), 스페인(4.59), 이탈리아(4.32), 헝가리(4.26)

출처: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08.

기업의 효율성

국 가	대기업		중소기업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싱가포르	1	8.22	16	6.64
스위스	3	8.14	3	8.00
오스트리아	7	7.78	2	8.09
아일랜드	8	7.65	21	6.36
프랑스	11	7.54	35	5.23
헝가리	12	7.52	48	4.00
미국	13	7.43	6	7.86
독일	17	7.15	5	7.91
네덜란드	18	7.14	7	7.59
벨기에	20	7.05	11	7.05
스페인	25	6.99	30	5.69
영국	37	6.38	26	5.92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5) 국제화

정치적 중립성에 기인하여 각종 국제기구가 몰려 있고, 독일어,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등 다수 언어가 통용되며 자유경제 정책에 입각하여 다국적 기업의 유럽본부 및 금융계가 집중해 있어, 스위스는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화가 진전되어 있다.

국제화 인덱스: 경제, 사회, 정치적 요소의 결합

* 만점: 100점

- 벨기에(92.09), 오스트리아(91.38), **스위스(88.60)**, 네덜란드(88.40), 영국(86.67), 프랑스(85.38), 독일(83.01), 스페인(82.73), 헝가리(82.52), 헝가리(79.82), 이탈리아(79.44), 싱가포르(78.37), 미국(76.76), 슬로베니아(70.26)

출처: Swiss Economic Institute: 2008 KOF Index of Globalization.

6) 금융제도

스위스는 금융계가 발달되어 있어 자금 조달 및 본국 송금 등에 큰 무리가 없으며 리스크는 매우 낮다.

금융계 규제

- * 만점: 10점(만점에 가까울수록 금융계 규제가 적음.)
- 싱가포르(8.04), **스위스(7.85)**, 아일랜드(7.4), 미국(7.23), 오스트리아(7.2), 네덜란드(6.95), 헝가리(6.72), 벨기에(6.71), 영국(6.69), 프랑스(6.63), 독일(6.22), 슬로베니아(5.55), 스페인(5.53), 이탈리아(5.17)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금융계 국가 리스크

- * 만점: 100점(점수가 낮을수록 금융계 크레딧 위험이 낮음.)
- **스위스(11)**, 오스트리아(16), 독일(17), 프랑스(17), 싱가포르(18), 네덜란드(18), 영국(20), 벨기에(20)

출처: The Economist: Country Risk Ratings 2008.

7) 유리한 노동여건 및 양질의 노동력

스위스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이며, 우수 노동력 보유여부로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노동시장 규제

- * 만점: 10점
- 싱가포르(8.19), **스위스(8.00)**, 미국(6.30), 오스트리아(5.69), 헝가리(5.68), 영국(5.06), 아일랜드(4.82), 네덜란드(4.15), 이탈리아(3.82), 스페인(3.71), 벨기에(3.40), 프랑스(3.24), 슬로베니아(3.13), 독일(3.08)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숙련된 노동력 접근성

- * 만점: 10점
- **스위스(6.55)**, 아일랜드(6.47), 미국(6.38), 싱가포르(6.37), 싱가포르(6.18), 프랑스(6.00), 독일(5.95), 헝가리(5.44), 이탈리아(5.39), 네덜란드(5.34), 벨기에(5.33), 영국(4.64), 스페인(4.49), 슬로베니아(3.98)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8) 조세제도의 효율성

스위스는 조세제도면에서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우호적인 사업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조세제도 효율성

국 가	순 위	효율성 정도(단위: %)
아일랜드	2	89
스위스	3	83
오스트리아	7	63
네덜란드	9	59
헝가리	11	47

국 가	순 위	효율성 정도(단위: %)
스페인	11	47
벨기에	12	46
영국	12	46
프랑스	14	41
슬로베니아	15	39
독일	17	30
이탈리아	19	28

출처: KPMG: Attractiveness of European Tax Regimes 2007.

법인세

* 단위: %

- 이탈리아(360), 헝가리(340), 미국(325), 스페인(298), 슬로베니아(260), 독일(196), 네덜란드(180), 오스트리아(170), 벨기에(156), 프랑스(132), 영국(105), 아일랜드(76), **스위스(63)**, 싱가포르(49)

출처: PriceWaterhouseCoopers(PWC) and World Bank Group: Paying Taxes 2008: the Global Picture.

다. 투자지로서의 단점

스위스 바젤 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소매가격은 인근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 보다 약 15% 이상 비싸다고 한다. 이러한 고물가는 스위스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업체들에게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고임금지역인데다 추가 근무 수당 등이 있어 투자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라. 스위스 내 투자(inbound investments) 지원기관

1) Location Switzerland

- 주소: Stampfenbachstrasse 85 P.O. Box 651 CH-8035 Zurich
- 전화: +41-43-300-5600, 팩스: +41-43-300-5605
- 홈페이지: www.locationswitzerland.ch

2)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SECO)

- 주소: Export and Investment Promotion Effingerstrasse 31-35 CH-3003 Bern
- 전화: +41-31-323-0710, 팩스: +41-31-324-8600
- 홈페이지: www.seco-admin.ch

3) Osec Business Network Switzerland

- 주소: Stampfenbachstrasse 85 P.O. Box 492 CH-8035 Zurich
- 전화: +41-44-365-5151, 팩스: +41-44-365-5221
- 홈페이지: www.osec.ch

4) KTI/CTI

- 주소: The Innovation Promotion Agency Effingerstrasse 27 CH-3003 Bern
- 전화: +41-31-322-2143
- 팩스: +41-31-322-2115
- 홈페이지: www.kti-cti.ch

5) SwissParks

- 주소: Club of Swiss Technology Parks and Business Incubators Lerchenfeldstrasse 5
9014 St. Gallen
- 전화: +41-71-274-7500
- 팩스: +41-71-274-7161
- 홈페이지: www.swissparks.ch

6) Fiscal Information Office

- 주소: Eigerstrasse 65 CH-3003 Bern
- 전화: +41-31-322-7148
- 팩스: +41-31-322-7349
- 홈페이지: www.estv.admin.ch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 스위스 직접투자 개요

스위스는 우호적인 투자분야 조세제도, 국제적 경영환경 등으로 다국적 기업의 유럽본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투자통계 및 실적을 담당하는 스위스 중앙은행은 외국계 투자기업 명단 및 관련 정보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투자국 및 투자분야 등만 파악되고 있다.

2009년 9월 말 기준 2007년 수치가 가장 최근 자료이며, 2008년 자료는 2009년 11월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나. 투자국

국가별 대스위스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capital inflows)

(단위: CHF, 백만)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유럽	14,159	-3,924	24,000	29,150	53,047
- EU	14,125	-4,034	24,031	29,083	53,707
· 벨기에	4,807	320	-1,073	69	939
· 덴마크	-33	314	1,037	933	434
· 독일	-21	-295	768	1,134	16,769
· 프랑스	939	784	2,158	13,895	1,919
· 이탈리아	-96	-2,131	211	428	753
· 룩셈부르크	314	574	-278	3,264	4,367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 네덜란드	6,025	-2,437	10,330	8,188	13,382
· 오스트리아	-9	735	9,826	2,534	13,022
· 스웨덴	244	-25	-913	73	955
· 스페인	29	122	500	68	-268
· 영국	1,765	-1,874	1,370	-1,896	-428
- 기타유럽	34	110	-31	68	-660
북미	7,213	7,007	-26,048	9,206	5,757
- 캐나다	290	111	-455	5,372	2,127
- 미국	6,923	6,896	-25,594	3,834	3,630
중남미	932	-1,400	878	164	350
- 역외금융시장	941	-1,967	653	113	-18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안	-79	-524	-14	147	-42
- 이스라엘	26	33	62	54	45
- 일본	-263	-229	-117	-90	-44
합계	22,224	1,159	-1,184	38,667	59,113

자료: 스위스중앙은행.

스위스 내 외국인 투자는 2007년 591억 스위스 프랑이었으며(2006년 대비 +53% 증가), 주요 투자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등이다. 스위스의 유리한 조세제도 등에 힘입어 유럽본부 등이 스위스에 위치하며 생산거점은 독일, 동구 등 기타 유럽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수치 및 기업리스트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가별 대스위스 외국인 직접 투자 누계 현황(capital stock)

(단위: CHF, 백만)

구분	2004	2005	2006	2007	비중(%)
유럽	130,185	158,110	223,103	274,338	72.2
- EU	128,063	155,108	219,885	271,854	71.6
· 벨기에	5,899	5,230	5,334	6,293	1.7
· 덴마크	9,416	8,776	9,540	9,670	2.5
· 독일	18,225	20,961	22,876	28,257	7.4
· 프랑스	16,305	18,138	30,418	34,701	9.1
· 이탈리아	4,340	4,510	4,856	5,931	1.6
· 룩셈부르크	9,650	11,806	17,009	22,779	6.0
· 네덜란드	46,902	55,556	65,478	83,880	22.1
· 오스트리아	2,317	12,703	46,121	57,707	15.2
· 스웨덴	2,821	2,184	1,612	2,331	0.6
· 스페인	856	1,268	1,402	1,403	0.4
· 영국	10,703	13,311	15,148	17,039	4.5
- 기타유럽	2,122	3,002	3,217	2,484	0.7
북미	89,590	59,164	66,480	72,966	19.2
- 캐나다	1,457	1,188	1,234	3,338	0.9
- 미국	88,133	57,976	65,246	69,628	18.3
중남미	1,515	3,458	30,449	29,249	7.7
- 역외금융시장	70	1,784	28,844	27,077	7.1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안	2,404	2,904	3,278	3,341	0.9
- 이스라엘	516	617	665	602	0.2
- 일본	1,081	1,019	937	932	0.2
합계	223,693	223,636	323,310	379,894	100.0

자료: 스위스중앙은행.

다. 투자대상 분야

한편 투자대상은 스위스가 강세를 보이는 금융, 화학 및 기계분야로 집중되어 있다.

업종별 대스위스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capital flows)

(단위: CHF, 백만)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제조업	6,650	3,000	1,037	11,685	26,887
- 화학 및 합성수지	2,522	2,545	955	4,724	18,042
- 금속 및 기계	1,797	443	-122	5,778	6,225
- 전기, 전자, 시계, 에너지	1,953	286	-192	1,381	1,960
- 기타 산업 및 건설	378	-273	395	-198	661
서비스업	15,575	-1,841	-2,221	26,982	32,226
- 무역	4,409	1,773	926	1,368	2,869
- 금융 및 홀딩	9,012	-4,550	-7,815	13,433	21,985
- 은행	733	198	1,759	1,553	3,420
- 보험	467	-106	309	13,370	1,712
- 운송 및 커뮤니케이션	807	-280	1,870	-2,065	1,052
- 기타 서비스업	146	1,125	730	-677	1,188
합계	22,224	1,159	-1,184	38,667	59,113

자료: 스위스 중앙은행.

업종별 대스위스 외국인 직접 투자 누계 현황(capital stock)

(단위: CHF, 백만)

구분	2005	2006	2007	비중(%)
제조업	37,145	47,721	62,898	16.6
- 화학 및 합성수지	17,087	22,947	30,708	8.1
- 금속 및 기계	5,916	6,841	9,370	2.5
- 전기, 전자, 시계, 에너지	8,643	12,467	16,631	4.4
- 기타 산업 및 건설	5,500	5,466	6,188	1.6
서비스업	186,491	218,325	316,996	83.4
- 무역	32,592	35,073	42,986	11.3
- 금융 및 지주회사	104,401	120,570	202,429	53.3
- 은행	29,688	32,059	35,761	9.4
- 보험	5,786	16,684	18,423	4.8
- 운송 및 커뮤니케이션	7,166	7,247	9,596	2.5
- 기타 서비스업	6,859	6,691	7,800	2.1
합계	223,636	266,045	379,894	100.0

자료: 스위스 중앙은행.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나라의 대 스위스 투자 개요

스위스는 우리 기업측면에서는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며 내수시장이 작아 투자 대상지로 큰 이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스위스 투자는 매우 소규모에 머물고 있다.

한국 수출입 은행에 따르면 2009.6월 누계기준으로 스위스에 직접 투자된 금액은 1억 3,795만 불이며 투자건수는 70건이다. 한편 2009년 들어서는 6월까지 우리나라의 대 스위스 투자가 전무하다.

우리나라의 대 스위스 투자 동향

(단위: 천불)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0	0	0	0
2001	3	138	138
2002	4	22,086	22,019
2003	1	3,441	3,441
2004	1	16	16
2005	2	3,671	2,430
2006	9	5,719	6,072
2007	13	68,609	45,116
2008	6	9,655	9,932
2009.6월	0	0	0
전 체	70	137,951	110,092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나. 스위스 진출 주요 우리 기업 현황

연번	회사명(국문)	진출 연도	진출형태 (선택)	투자형태 (선택)	업종 (선택)	취급분야
1	(주)대한항공취리히지점 (Korean Air Regional office, Zuerich)	1976	지점	단독	운수업	항공 서비스업
2	삼성전자오스트리아법인 취리히지점 (Samsung Electronics Austria GmbH Zurich Branch)	2006	지점	단독	도매 및 소매업	핸드폰, 노트북, TV 등
3	(주)LGHausys 유럽 제네바지점 (LG Hausys Europe GmbH Geneva Branch)	2003	판매법인	단독	도매 및 소매업	인조 대리석
4	엠씨엠프로덕트 아게 (MCM Product AG)	1998	판매법인	단독	도매 및 소매업	피혁제품 (가방, 벨트 등)
5	시보레 유럽본부 ((구)GM대우유럽본부) (Chevrolet Europe GmbH)	2002	판매법인	단독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6	고려제강 판매법인 (Verope AG)	2004	판매법인	합작	건설업	건설, 부두장비
7	(주)영원무역 연락사무소 (Youngone Corp. Korea-European Liaison Office)	1992	연락사무소	단독	단순 연락사무소	다양
8	조아 코퍼레이션 (Joah Cooperation)	2001	판매법인	단독	도매 및 소매업	IT 제품
9	라감 (Lagam SA)	2004	국내 모기업 없음	단독	도매 및 소매업	P.E.T
10	캐스텍 유럽 아게 (Castec Europe AG)	2008	판매법인	단독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엔진 부품품
11	엘지전자 스위스 지점 (LG Electronics Austria GmbH Schweizer Representative)	2006	지점	단독	도매 및 소매업	전자제품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스위스 정부는 연방, 26 개의 칸톤 및 지자체로 구성되며, 조세제도도 연방, 칸톤, 지자체 마다 각기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조세제도는 완만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설립에 있어서는 주정부와 지자체 세율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편 칸톤정부들은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유리한 조세정책을 펼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연방, 칸톤, 지자체 모두 세금을 면제하며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는 소위 우편함 회사(domiciliary company)에게는 칸톤과 지자체가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제조분야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10 년 동안 법인세와 자본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면제 기간’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지역 고용,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지자체 심사위원들이 신청 회사의 보고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인센티브 수령을 위해서는 투자 이전에 해당 지자체를 접촉,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투자장려, 제한 및 금지 분야

외국인의 부동산 유형별 취득 가능 여부

구분	영주허가(C)	체류허가 (12개월, B)	단기거주허가 (12-18개월, L)	체류허가 없음
주거 목적의 토지 매입(3000㎡까지 매입 가능, 구입 1년 안에 공사 착공)	가능	가능	제한	제한
상업 및 산업단지 내 토지 구입 (구입 후 1년 내 공사 착공)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주거 목적의 단독주택 매입	가능	가능	제한	제한
주거 목적의 다세대 주택 매입	가능	제한	제한	제한
영업 목적의 부동산 매입	가능	가능	가능	가능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입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별장	가능	허가요	허가요	허가요

자료: Buergi Naegeli Rechtsanwaelte: Immobilien Kaufen und Verkaufen.

스위스 연방정부는 별도의 투자 인센티브나 특별한 투자 유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연방/ 칸톤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유치 성약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는 특별한 규제 없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자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업허가 대상은 은행-보험-펀드회사, 호텔 및 요식업, 의사-약사-변호사, 와인 도소매업, 인력 파견업체, 카지노, 무기취급 관련업 등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스위스 은행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신규 의약품 생산 시에는 Swissmed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EU지침 및 임상 실험을 통해 합격여부가 결정되고 등록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스위스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는 외국인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1997년 10월 1일부로 대스위스 외국인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토지매입 허가제를 생산, 영업 및 서비스 업무 용도에 한하여 폐지하였다. 단 12개월의 단기 체류허가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은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 투자인센티브

1) 연방차원

스위스 연방의회는 1995년 10월 6일 지역균형발전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경제적으로 침체된 17개 칸톤을 대상으로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 지원 프로그램은 두 차례 연장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유지되었다(2009년 들어 신규 프로그램이나 추가조치는 5월 기준 아직 없음). 한편 지원대상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산업 부흥을 가능하게 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 프로젝트로 한정하였다.

17개 칸톤 대상 스위스 연방정부의 신규투자 분야 지원 내역

구분	지원 내역	기간	비고
세제혜택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직접세 면제	최대10년	2008년 말까지 유효했음.

자료: Location Switzerland.

2000~2006년 스위스 연방정부 지원 투자프로젝트

구분	2000	2004	2005	2006	2000~2006
지원프로젝트 (개)	35	48	58	45	260
투자금액(CHF 백만)	266.1	480.7	875.3	679.9	3,606
신규일자리창출	1,446	1,825	2,879	2,390	12,698

주: 2009년 5월 기준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자료;

자료: SECO.

2) 칸톤차원

칸톤정부 투자지원 내역

구분	지원내역
은행	- 은행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 대출 이자율의 경감 또는 칸톤정부의 이자 부담 - 칸톤정부의 저리 또는 무이자 대부 - 1회성 금융지원
임지	- 공장임지 또는 사무실 알선 - 산업공단의 공간활용설계 시 금전적 지원 - 기존 공장 등 산업공간의 재설계 시 금전적 지원
인력	- 채용인력의 수습기간 급여 보조
세제	- 투자초기 세제혜택

출처: Location Switzerland.

칸톤정부는 연방정부가 지원을 결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그 밖에 세제혜택, 정착지원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지역, 금액,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라. 투자관련 유관기관

- Location Switzerland
 - 주소: Stampfenbachstrasse 85 P.O. Box 651 CH-8035 Zurich
 - 전화: +41-44-365-5151
 - 팩스: +41-44-365-5221
 - 홈페이지: www.locationswitzerland.ch
-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seco)
 - 주소: Effingerstrasse 31-35 CH-3003 Bern
 - 전화: +41-31-322-5656
 - 팩스: +41-31-322-2749
 - 홈페이지: www.seco.admin.ch
- Osec Business Network Switzerland
 - 주소: Stampfenbachstrasse 85, Postfach 2407, CH-8021 Zurich
 - 전화: +41-44-365-5151
 - 팩스: +41-44-365-5221
 - 홈페이지: www.osec.ch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진출형태

원칙적으로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은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체류자격과 노동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스위스 투자진출 형태로는 신규법인 설립, 기존 주식취득, 합작법인 설립, 기술 제휴 및 지사설립을 들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의 대표적인 투자 형태는 현지법인 설립(주식회사 또는 유한 회사)과 지사 설립이다.

1) 주식회사(AG: Aktiengesellschaft)

최소 1명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법률행사를 위해 스위스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기존 스위스 국적제한 규정은 2007년 말 폐지되었다. 최소 자본금은 10만 스위스 프랑으로 이중 50%는 자본금으로 주금 납입해야 하며, 법인설립 등기 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요기관으로는 주주총회(최고의 의사결정기관), 이사회(업무집행에 관한 결정), 대표이사(업무집행 및 회사대표) 및 감사(업무감사 및 회계감사)가 있다.

2) 유한회사(GmbH; Gesellschaften mit beschraenkter Haftung)

회사설립에는 최소 1명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법률행사를 위해 스위스 거주자가 있어야 한다. 기존 스위스 국적제한 규정은 2007년 말 폐지되었다. 최소 설립자본금은 2만 스위스 프랑으로 전액 즉시 주금 납입해야 하며 법정자본금의 상한선은 없다. 지분 양도는 관보에 공지해야 했으나, 상법개정 이후에는 서면 계약을 통해 지분양도가 가능하다.

3)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법인등기의 의무는 없으나 사업자 등록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경영권은 해외 모기업에 있으며 최소 법정자본금은 없다.

설립 형태별 장단점

	개인사업체	합자회사	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	자회사
설립	특별한 설립 절차 없음 (단 연간 매출 7.5만 스위스 프랑 이상, 사업자 등록 의무)	특별한 설립절차 없음 (단 사업자등록 의무)	법인등기 의무, 사업자등록 의무	법인등기 의무,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자등록 의무
목적	개인 사업	무역/ 제조	무역/ 제조	무역/ 제조	모회사의 경영권 하에 사업
경영권	소유주	동업자 모두	주주	동업자	모회사
설립자	최소 1명 스위스 거주자	최소 1명 스위스 거주자	최소 1명 스위스 거주자	최소 1명 스위스 거주자	모회사
최소 자본금	-	-	10만 스위스 프랑 (주금납입 최소 5만)	2만 스위스 프랑 (전액 주금납입)	의무 자본금 없음
장점	편리성	중소기업에게 적합, 기업의 국적 제한 없음	외국투자자의 요구 조건과 일치, 투자가 익명성 보장, 유한 책임, 간편한 주식 양도	경영권자의 국적 제한 없음, 유한 책임	자본금 의무 없음, 저렴한 설립 비용, 스위스 국적의 경영권자 의무 없음.
단점	책임여부	책임여부, 사회 복지보험 의무	비용, 이중과세	복잡한 주식양도 절차, 구조조정의 융통성	스위스 자회사에 대한 책임 없음

『 자료 』 Greater Zurich Area AG.

나. 법인설립 절차

1) 사전준비

□ 영업허가 획득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는 없으나 일부 산업분야의 투자 및 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칸톤 경제부서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 대상분야는 은행/보험/펀드회사, 호텔 및 요식업, 의사(치과의사), 약사, 변호사, 와인 도소매 유통회사, 유통공급 회사, 카지노, 무기취급 업체 등이다.

신규 의약품 생산 시에는 스위스 보건청(Swissmed)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EU지침 및 임상 실험을 통해 합격여부가 결정되고 등록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 부가가치세 번호부여

연간 매출액 7.5만 스위스 프랑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스위스 연방 국세청에 신고하여 회사법인 등기 전에 부가가치세 납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 유사상호의 검토

지정한 회사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업 등기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참조: www.zefix.admin.ch 혹은 www.gruenden.ch)

□ 자본금 확정 및 주금 납입

주식회사의 법정 최소 자본금은 10만 스위스 프랑이며, 1주의 액면가는 최소 1 라펜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주금 납입의 종류(현물, 현금)를 확정된 후, 최소 법정 자본금의 50%인 5만 스위스 프랑을 납입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최소 법정자본금은 2만 스위스 프랑으로, 전액을 주금 납입해야 하며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

□ 주요기관 및 임원직 확정

주식회사의 주요기관 및 임원직은 주주총회(최고의 의사결정기관), 이사회(업무집행에 관한 결정), 대표이사(업무집행 및 회사대표) 및 감사가 있다.

2) 회사 설립

□ 상업 등기소 등록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회사 소재지 상업 등기소에 회사등록을 함으로써 회사가 설립된다.

□ 법인설립 시 필요서류

다. 법인설립 필요서류 참조

□ 법인설립 필요서류의 검토 조치(유한회사, 주식회사 동일)

법인설립 필요서류가 준비 완료되면 법인설립등기 접수 전 칸톤정부 상업 등기소에서 서류가 올바르게 준비 되었는지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사전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이며 비용은 200~300 스위스 프랑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다.

□ 공증(유한회사, 주식회사 동일)

준비된 법인설립 서류는 빠른 시일 내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증 시 설립자(발기인)가 직접 공증을 받거나 공증된 위임장을 소지한 법적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서명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은 공증사무소 또는 상업 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서명 1개당 공증사무소의 경우 20~30 스위스 프랑, 상업 등기소의 경우 10 스위스 프랑이 든다.

□ 상업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록 및 관보 공고

법인설립 신청서는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상업 등기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법인설립 신청서는 제출 서류의 정확성, 누락여부 및 법률의 위배 여부가 검토된 후 접수 약 7일 후 주정부 상업 등기소에 등록된다.

법인설립 등기내용을 연방 정부 상업 등기소에 보내고 접수 후 약 2일의 검토기간을 거친 후 연방정부가 승인을 하면 법인설립 등기는 완료된다.

법인설립 등기 후 3일 이내에 법인설립을 스위스 관보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 비용

- 기본수수료: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600 스위스 프랑 소요(자본금 2만 스위스 프랑 이상인 경우 할증 수수료 납부)
- 기타 수수료
 - 임원의 추가 등재 시: 20 스위스 프랑/업종
 - 서명자 추가 게재 시: 30 스위스 프랑/서명자
 - 신청서 처리 행정수수료: 70 스위스 프랑
 - 등기부등본 발급: 50 스위스 프랑
 - 스위스 관보 법인설립 공고: 120 스위스 프랑
 - 행정수수료: 5~150 스위스 프랑

□ 주금 납입금의 회사계좌로 이체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은행에 예치된 자본금은 법인계좌로 이체된다.

다. 법인설립 서류(주식회사/유한회사)

- 발기인(대리인),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의 서명, 생년월일, 주소
 - 회사 상호 및 소재지 법인설립 등기신청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서명과 서명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회사서명을 거쳐야 하므로 모든 서명은 공증 받아야 한다.
- 공증된 창립사항보고서
- 정관(법적 의무기재사항인 목적, 상호, 1 주 금액, 발행한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 감사 및 이사의 취임 승락서
- 창립총회 이사록
- 주금 납입 보관증
- 회사 소재지 증명서
- Lex-Friedrich: 회사가 영업의 용도 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라. 설립비용 및 설립기간

1) 설립 비용

주식회사는 개인회사 보다 설립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한 예로 주식회사(유한회사) 설립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본금 100만 스위스 프랑의 기업의 경우 법인설립 비용은 약 7천 스위스 프랑이 소요된다.

법인 설립비용은 컨설팅비용과 법인 설립을 위한 수수료로 구분되며, 상업 등기소 등기, 공증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약 2천 스위스 프랑이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컨설팅 비용이 약 2천~5천 스위스 프랑이다. 채권발행 비용은 자본금의 1%이나, 자본금이 100만 스위스 프랑 또는 자본 증액분이 100만 스위스 프랑까지는 채권발행 수수료가 없다.

2) 법인설립 소요기간

주식회사(AG) 및 유한회사(GmbH) 설립소요기간

구분	설립기간(단위: 주)					
	1	2	3	4	5	6
사전검토, 업체등록 및 회사명(허가)	★					
설립을 위한 서류준비		★				
자본금 납입			★	★		
설립 및 설립증명서 발급			★	★		
칸톤 공공일지 발행					★	
경영권자의 사업자등록						★
납세의무등록						★

『 자료 』 Greater Zurich.

마. 지사 설립

1) 지사 설치 신청

지사 설립 신청은 자사 소재지의 상업 등기소에서 해야 하며, 등기신청서는 사장, 부사장, 비서 또는 이사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한편 회사서명, 회사명, 서명권자의 서명은 모두 공증사무소 또는 상업 등기소에서 공증 후 제출되어야 한다.

2) 모기업의 등기부 등본 제출

모기업의 등기부 등본은 모기업 소재의 관할관청 또는 스위스 영사를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반드시 자본금 내역/이사회/감사원 등 내용 포함).

3) 모기업의 정관 제출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스위스에 있는 해당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아서 제출한다.

4) 모기업의 지사 설치 및 지사 대표자 임명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제출

의사록은 대표이사에 의거하여 서명되어야 하며, 지사 대표자는 직접 서명한 취임 승락서를 공증 후 제출한다.

의사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해외지사설치 결정, 지사의 상호, 지사의 서명권자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서명권의 종류(단독 서명권, 공동 서명권 등), 지사의 소재지이다.

5) 번역

외국어로 작성된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6) 참고사항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지사형태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은행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허가 취득 전에는 상업 등기가 불가능하다.

바. 공장설립 절차 개요

스위스에서 공장 설립 시 인적자원 확보, 공장운영에 따른 세금문제, 건축허가별로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강화로 공장건설 전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1) 인력 고용문제

스위스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 고용문제라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스위스에서 노동허가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현지인 고용비율 조건을 맞출 경우 현지법인을 운영할 자질 높은 경영자와 기술자는 비교적 쉽게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2) 공장 운영에 따른 세금문제

스위스의 세제는 연방정부, 칸톤정부 및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므로 공장입지 고려 시 유의해야 한다. 연방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반면, 26개 칸톤의 세율은 상호간 많이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의 세율은 칸톤세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스위스의 모든 소득세는 등급화되어 있으며 연방 소득세율은 3.63%와 9.8% 사이이다. 소득세는 칸톤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며, 세금 산정기간은 칸톤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세율은 납세 계획과 공장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가 된다.

3) 건설허가

서비스 및 산업시설은 특정지역에만 건설이 가능하며 건설 및 공간활용 규제는 칸톤정부법에 의거하여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준비절차는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상이하며 산업시설은 건설허가 외에도 영업허가와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건설 프로젝트인 경우 추가설명이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허가를 취득하는데 2~3개월이 소요된다. 주정부의 경제진흥청(OSEC)에서는 공장이나 건설 용지 알선과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허가 단계별 소요기간

건설허가 단계별 소요기간(단위: 칸톤)	1	2	3	4	5	6	7	8	9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								
공장소재 관할구청의 사전검사	★	★							
관보 공고		★							
이의신청 기간		★	★	★					
이의신청 처리				★	★				
신청자 수정, 보정					★				
행정당국 검토					★	★			
심사 및 결정							★	★	★
건설허가 통보 및 등록									★

『 자료 』 Location Switzerland.

4) 환경영향 평가

공장 또는 각종 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스위스 정부차원과 시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친 후에 건설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볼 때 상수보호, 환경보호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호에 관련된 스위스 국가법은 자연 피해를 가능한 한 최소화 하기 위해 공기 오염, 소음, 진동, 유해 물질, 쓰레기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다. 배출 가스는 오염한도, 건축, 설비, 교통법을 통해 제한된다.

자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건축, 설비, 장치에 관련된 계획이면 환경영향 평가를 법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6. 투자입지여건

가. 투자형태 결정

스위스의 투자진출 형태는 신규 법인설립, 기존 주식취득, 합작법인 설립, 기술제휴 및 지사 설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외국인의 스위스 내 대표적인 투자형태로는 현지법인 설립(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및 지사 설립을 들 수 있다.

스위스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들이 선호하는 기업형태는 주식회사(AG)이며, 합작투자나 지분 참여 방식은 흔하지 않다. 스위스에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GmbH가 있으나, 대부분이 개인기업 형태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10만 스위스 프랑이며, 설립 시 최소한 5만 스위스 프랑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불해야 한다. 주식발행은 기명주식 또는 무기명 주식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며, 최소 액면가액은 10 스위스 프랑이다. 스위스 또는 외국의 어떤 사람이 나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나.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스위스에서의 기업 설립 및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주 정도이며, 계획추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설립회사의 소재지를 선정해야 한다. 세법, 활용가능 노동력 및 공장 설립 등 관련 승인 가능성 및 소요 제반비용 등이 칸톤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부 칸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취득하고 회사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음으로 고용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외국 노동자들은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아야만 체류 및 근무가 가능하다.
- 이 외에 세금문제를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들은 스위스 내 공장 등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스위스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한편 스위스에는 100% 외국인 소유의 기업설립이 가능하며 정부의 규제도 거의 없는 편이나 은행과 보험분야는 허가가 필요하고 감독을 받는 등 규제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파트너 선정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는 반드시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스위스 국적이 다수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국인 기업들은 통상 주식을 소유한 스위스인을 이사로 지정해야 하며 관리자는 스위스 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단독 서명권을 가진 관리자 중 최소한 1인 또는 합동 서명권을 가진 관리자 중 최소한 2인은 스위스 거주인이어야 함을 감안하여 파트너를 선정 해야 한다.

라. 등록

회사 소재지를 결정하고 나면 상업등기소(COMMERCIAL REGISTER)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서류에는 회사명, 자본금, 설립목적, 이사 및 관리자의 성명, 서명권자의 서명 등이 기입 되어야 하며 등기서류는 등록된 공증인에 의해서 반드시 공증되어야 한다. 한편 일부 칸톤에서는 인증된 번역가에 의해서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서류를 요청 하기도 한다.

마. 투자입지

스위스는 협소한 시장규모 및 산업구조 특성상 대량 생산체제의 제조업은 발달하지 않았으며, 주로 중소 규모의 첨단기술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단지와 유사한 공단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스위스의 3대 공업지역으로는 취리히, 바젤, 제네바/로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들 중 ‘산업지대(Industry Zone)’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역도 있으나 우리 나라의 공단과는 상이하며 주로 사무실 또는 중소규모의 제조시설이 존재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입지선정 시 투자관련 정부기관 및 서비스 기관 이용을 적극 추천한다.

7. 노무관리

가. 개황

스위스 노사관계는 법정 최소 휴일, 최대 정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 계약에 관한 연방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있어 대부분의 노사관계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노동협약(Agreement in the Engineering Industry)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해당 협약은 노사간의 평화협정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평화 유지를 위한 상호 간의 의무, 쟁의행위의 통일, 모든 갈등을 상호 협의와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사내와 경제부문에 서의 노사 의무 등이다.

나. 임금수준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며 임금수준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취리히(Zurich)와 바젤(Basel)지역의 임금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스위스 내 임금 범위

구분	임금(EUR)	임금(미불)
사장(중급 규모의 기업)	132,000 이상	189,000 이상
본부장(100명 이상의 직원; 10년 이상의 오랜 경험)	115,000 이상	167,000 이상
신용조사 전문가(10년 이상 업무경력, 부양가족 있음)	60,000-80,000	88,000-114,000
기술자(전문대, 대학졸업, 5년 이상 업무경력)	58,000-80,000	84,000-116,000
사장 비서(1개 외국어 구사가능)	41,500-53,500	60,000-77,000
전문 사무원(10년 이상 업무경력)	41,500-50,600	60,000-73,000
일반 사무원(직업 초년생)	31,500-35,400	44,000-51,000

주: 13개월 월급 기준;

『 자료 』 Location Switzerland(동 수치는 Swiss Engineering STV, salary survey 2007에서 인용되었으며, 2009년 5월 기준 여전히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임).

다. 근무시간

스위스 법적 최고 근무시간

법적 최고 근무시간	근무시간/주
제조업/산업시설	45
사무실 및 판매직원	45
레스토랑, 호텔, 병원, 농업 및 임업	50
기타 법적 근무시간	41~42

『 자료 』 Location Switzerland(동 수치는 Wilhelm-DMS-Gruppe에서 인용되었으며, 2009년 5월 기준 여전히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임).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사무실뿐만 아니라 공장, 건설 현장 등 작업장에서의 주당 정규 근무시간은 통상 40-43시간이며, 주5일 근무한다(토요일, 일요일 휴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간외 근무는 25%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거나 초과 근무에 상응하는 부가적인 휴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초과근무는 연간 2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휴가제도

휴가와 관련한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유급휴가: 연간 최소한 4 주간의 휴가를 부여하며 20 세 이하의 고용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5 주간의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휴가 중에도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 임신출산휴가: 연간 유급휴가는 임신출산 휴가와 구별되어야 하며 임신출산 휴가는 14 주로서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 질병, 사고, 법적 의무 수행으로 인한 결근 시의 급여 지불: 고용자가 질병이나 사고 또는 법적 의무수행을 위하여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고용주는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마. 노동생산성

스위스는 고임금국가로 임금 수준이 타 유럽 국가보다 높은 반면, 노동 생산성이나 숙련도가 유럽에서 가장 우수하고 결근율이 적으며 근무시간도 유럽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편이다.

바. 해고

계약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약통고 없이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해고가 가능하다. 단 10년 이상 고용했을 때 3개월 전에 해약통고를 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함께 1차년도 계약기간 중에는 1개월 전에, 2차년도 이후 제9차년도 기간 중에는 2개월 전에, 10차년도 이후부터는 3개월 전에 해약통고를 함으로써 해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차년도 계약기간 종료 후 양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연장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무기한 고용계약"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사전통고에 의해 해약이 가능하며 해약통고기간은 계약 기간 명시와 동일하다.

적법한 해고(적법한 해고사유에 의한 적법한 해고통고 기간 준수)시의 퇴직금 지불은 계약서 상에 명시하지 않은 한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단 50세 이상의 고용인이나 20년 이상 근무한 고용인을 해고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고용인이 계약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인 배우자나 직계 비속 또는 고용인의 타 부양 가족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퇴직금은 최소한 2개월 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고용 계약서상에 퇴직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되 최대 8개월 분 급여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 적법한 해고 시 고용주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이 지속되었을 경우에 고용인이 향유할 수 있었던 모든 금전상의 이득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최대 6개월 분의 급여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노동법

스위스의 노동법은 엄격하지 않으며, 기업은 비교적 자유롭게 고용 및 해고를 할 수 있다. 스위스의 주요 노동법은 1964년에 제정된 연방 노동법으로서 동법은 특정산업을 위한 단기 노동규정(1975년 11월 제정), 특정산업을 위한 특별규정(1975년 11월 제정), 노동자 보건 및 안전규정(1969년 3월 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장 근무여건(1914년 6월 제정), 노동분쟁의 중재(1949년 2월 제정), 단체임금교섭(1956년 9월 제정)에 관한 연방법이 있으며, 법정휴가보상(1983년 12월 제정), 사회보장(1946년 12월 제정), 노인보험에 관한 규정(1947년 8월 제정), 의료보험(1981 3월 제정), 사고보험(1981년 3월 제정), 실업보험(1982년 6월 제정), 개인연금(1982년 6월 제정) 및 직업훈련(1987년 4월 제정)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1) 단체권

외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협력하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스위스 경제체제 변화, 고임금 노동자들의 높은 생활수준, 중요한 정치, 사회 및 경제문제에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여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성화는 제한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회원의 이익을 대표하여 자신들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공표할 수 있다. 스위스의 노동조합연맹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및 세계노동연맹, 유럽무역노동조합연맹에 속해 있다.

2) 단체 협상권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벌일 권리, 노동조합원 차별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주어진다. 한편 스위스 정부는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장려하고 있다.

아. 사회보장제도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음의 '삼주제도(Three-pillar system)'에 기초를 두고 있다

- 一柱: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노후와 생계에 대한 연방의무보험
- 二柱: 퇴직 이후, 기존 생활환경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
- 三柱: 자의의 개인 보험

첫 두 개의 카테고리는 최종소득의 60% 수준의 연금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최고 연간 57,600스위스 프랑) 개인 보험료에 의한 셋째 카테고리는 기타 다른 필요성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기타 사회보장제도는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총 임금에 대한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액

보험종류	연간보험료	납부액	연간소득
	고용주	노동자	(CHF)
노후생계보험 ¹	4.2	4.2	-
연방상해보험	0.6	0.6	-
군복무 기간 중 수입보조제도	0.25	0.25	-
실업보험	0.2	0.2	97,200
연금 ²	5 -9.0	3.5-9.0	³
가족수당	1-2.5	-	-
산업재해보험 ⁴	0.1-0.7	-	97,200
기타			
남자 (최고한계지급비율)	-	1.412	97,200
여자(최고한계지급비율)	-	0.847	97,200

주¹: 연간 근로 소득이 14,400스위스 프랑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이라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지불;

주²: 보험료의 각출은 직원의 나이에 따름;

주³: 25세부터 정년인 65(62)세까지 연간 최소 19,200스위스 프랑의 소득을 버는 고용인은 최대 38,400스위스 프랑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주⁴: 적립비율은 관련된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상이; 많은 회사들이 직원의 질병에 대비하여 손실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보험료는 총 임금대비 약 1.2%임;

『 자료 』 Location Switzerland(동 수치는 Wilhelm-DMS-Gruppe에서 인용되었으며, 2009년 5월 기준 여전히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임).

자. 외국인 고용

스위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스위스 시민과 외국인들의 인구비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2005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노동자의 이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거주와 노동허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계절노동허가(A 허가): 엄격하게 제한된 조건으로 허가되며 한시적인 거주만을 허가하며 (최장 9개월까지) 계절허가는 주로 건설이나 관광업 등에 이용된다.
- 일시 거주허가(B 허가): 전체적으로 1년간 유효하며 해마다 갱신해야 하고 최초 일시 거주허가수는 매년 전 칸톤에 걸쳐 7,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 칸톤에 할당 인가수를 구체적으로 배정하며 연방정부는 4,000명의 인가를 배정 받는다. 스위스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라면 즉시 B 허가를 부여 받는다.
- 영주허가(C 허가): 스위스에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이나, 협정을 맺은 국가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의 국민으로서 5년 이상 스위스에 거주한 자에게 인가한다.
- 단기 거주허가: 12개월에 한하며 교육목적이나 단기 활동목적, 예를 들면 특수계획의 수행 목적에 국한한다. 12개월의 거주기간을 14,000명의 할당량 한도 내에서 18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 국경 노동자 허가: 최소 6 개월 이상 인접국의 국경지대에서 거주한 외국인이 스위스 영토 안에서 일하는 경우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매일 자국의 거주 지역(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 예술인 허가: 연간으로 계산하여 8 개월 동안 허가한다.
- 120 일 허가: 4 개월 미만의 거주자나 노동자들에게 소위 "120 일 인가"를 적용한다. 동 제도는 할당제와 관계없으며, 외국인들에게 제한된 분야에 한하여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허가나 거주허가가 없는 외국인들은 스위스 내 고용되거나 이윤추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원이 입국하기 전에 베른(Bern) 소재 연방산업 통상 노동부처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칸톤정부에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주거인가는 노동인가가 발급되면 신청자의 가족들(아내와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한편 일시 노동거주허가를 신청할 시 고용주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시 허가 할당량 때문에 노동 허가 획득은 어려우나 경영자와 전문가들에 대한 허가는 쉽게 발급된다.

해당 허가들은 단지 1년간 유효하고 해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갱신은 철저하게 정부의 관할로 이루어지나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행해지고 있다.

외국인은 스위스에 처음 일년 거주하는 동안은 칸톤, 직업, 기업 또는 고용 주를 바꿀 수 없다. 새로 고용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노동, 거주 허가는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스위스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차. 노동시장 변동 사항(2008년부터 유효)

1) 불법노동 근절을 위한 연방법안 실시

스위스 정부는 불법노동 근절을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로 불법노동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벌금부과(최대 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부과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를 비롯한 최대 5년 까지 공공 조달 참여제한, 공공자금 지급 중단 또는 삭감 등이 실시된다. 한편 스위스 연방경제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법기업 리스트가 공개된다.

2) 외국인 노동자 노동허가 취득 용이

EU 회원국 국가 외 외국인 채용 시 노동허가 취득이 어려웠으나, 2008년부터 기업의 경영진급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취득이 용이해졌다.

8. 조세제도

가. 스위스 조세제도 개요

스위스는 연방국가로 통일된 조세제도는 없으며, 일부 조세는 독점적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부과되고 일부 조세는 연방정부, 26개 주정부(Kanton), 지자체(Kommune)에 의해 부과된다.

한편 연방정부에 의한 조세는 세율이 일정수준으로 부과되는 반면, 주정부(kanton)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는 칸톤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스위스 진출 시 투자대상 칸톤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조세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칸톤으로는 Zug, Schwyz 등을 꼽을 수 있다).

주: 스위스는 칸톤마다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조세를 낮추고 있다.

□ 연방세

- 직접세(Direct federal tax: direkte Bundessteuer): 법인소득세는 8.5%로 정률제이며 개인소득세의 경우 결혼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차등적용 되고 있음.
- 부가 가치세(Value added tax: Mehrwertsteuer 2001.1.1부터 시행): 7.6%
- 배당 및 이자 원천징수세액(Withholding tax on dividends and on interest: Verrechnungsteuer): 35%
- 인지세 (Stamp duty: Stempelabgaben): 1%
- 관세 (Customs duty: Einfuhrzoll)
- 기타 물품소비세 및 군면제세(Military exemption tax) 등

□ 지방정부세

- 법인 소득세 및 개인 소득세(Income tax: Einkommenssteuer)
- 법인 자본세(Capital tax on corporations: Kapitalsteuer)
- 순자산세(Net wealth tax on individuals: Vermoegenssteuer)
- 교구세(Parish tax o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Vermoegenssteuer)
- 부동산 이득세(Real estate gains tax o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Grundstueck - gewinnsteuer)
- 상속 및 증여세(Inheritance and gift taxes: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n)

참고: 직접세 및 간접세 부담비중(%)

구분	연방 정부	칸톤 주정부	구	합계
총 세액	43.0	33.0	24.0	100.0
직접세	29.0	40.0	31.0	100.0
간접세	91.0	9.0	-	100.0

자료: 스위스 연방세무국(Swiss Federal Tax Administration).

상기 세금은 칸톤별로 상이하며 부동산 재산세(Real estate property tax),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거래세(trade tax), 소방세(firebrigade tax) 등이 있다.

칸톤 및 구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의 2배 수준까지 달하고 있으며, 칸톤의 조세제 도는 과세대상 소득의 산정방식과 개인별 할인(allowance), 공제(deduction), 평가(assessment) 등의 제도에 있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법인세

1) 조세법에 따른 기업 구분

스위스의 조세법은 기업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해당 기업의 유형에 따라 조세범위 및 규모가 결정된다.

- 제조업체(operating company): 주로 생산, 무역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주회사(holding company): 타 회사에 지분참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우편함 회사(domiciliary company):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며, 조직부서(재무, 자산관리 등)만 스위스에 위치하는 기업 혹은 해외에서만 활동하는 기업(즉 해외에서 제품 구입 혹은 해외로 제품 판매)

기업유형에 따른 조세체제 개요

기업 유형	연방 차원	칸톤 차원
제조 업체		
전 반	정상적인 조세부담	
조세 경감(면제)	단기 신규분야의 신규업체에 제한 적용	최대 10년
지주회사	조세 경감 혹은 면제	
우편함 회사	정상적인 조세부담	조세 경감 혹은 면제

출처: OSEC.

2) 기업유형별 법인세

□ 생산/무역 및 서비스기업

칸톤 차원에서는 기업이익에 대한 세금은 순수익을 고려하여 책정된다. 한편 스위스 연방 차원에서는 수익에 비례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수익의 8.5%에 상응한다.

스위스 내 활동하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예시

(전제: 1. 기업의 활동영역은 바젤시, 2. 자본금은 500천 스위스 프랑, 3. 수익은 300천 스위스 프랑)

구분	영업 이익	자본금
연방 직접세	8.5%	
칸톤세(최대 세율)	24.5%	0.525%
총 계	33.0% = 99,000 스위스 프랑	0.525% = 2,625 스위스 프랑
세전 기업이익	401,625 스위스 프랑	
영업 이익/자본금 법인세	101,625 스위스 프랑	
순수 기업이익 (세금지불 후)	300,000 스위스 프랑	
세전 기업이익의 법인세 비율	25.29%	

출처: SECO.

스위스 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연방, 칸톤차원의 세금을 합쳐 기업 이익의 약 21.3%선이 되고 있다(비교: 아일랜드(21.5%), 네덜란드(25.5%), 영국(30%), 독일(38.4%), 미국(40%)).

□ 지주회사

자산의 2/3가 투자되거나 회사 이익의 2/3가 여타 회사 지분 참여에 의해 발생하면 지주회사로 인정되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세금감면을 받는다.

한 회사가 200만 스위스 프랑 또는 자본금의 20% 이상을 여타 회사에 투자한 경우 연방 및 칸톤 차원에서 해당 이익금에 투자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세제상 이득을 보장받는다.

□ 우편함 회사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칸톤 차원의 조세를 면제 혹은 경감 받는다. 즉 대부분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혹은 법인세율의 1/10~1/15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우편함 회사의 칸톤별 법인세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9년 5월 기준 스위스 무역투자진흥청의 추천 사이트임).

www.vischer.com: investments in Switzerland, VISCHER Attorneys at Law(2007)
www.kpmg.ch: How Switzerland attracts international headquarters, KPMG(2006)
www2.eycom.ch: Headquarters and Principals in Switzerland, Ernst & Young(2005)

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정기 또는 비정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방차원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칸톤차원에서는 개인 소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한다.

내국인은 1년에 1회 자진 소득신고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분기 별 원천 징수하여 조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내국인은 세전 총 수입에서 사회 보장세, 의료 보험료 등 세금공제 혜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칸톤마다 기혼여부, 자녀 여부 및 소득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소득세율이 부과된다(통상 Zug 칸톤이 가장 낮고, Neuchatel 칸톤이 가장 높다).

개인소득세 예시

세전 소득(스위스 프랑)	칸톤별 소득세율(%)	연방차원의 평균(%)
50,000	2.37 ~ 7.15	5.23
100,000	6.40 ~ 15.15	12.00
200,000	13.13 ~ 24.52	20.71

자료 : 스위스 연방세무국(Swiss Federal Tax Administration).

라. 부가가치세

스위스의 부가가치세는 7.6%(생필품, 잡지 및 신문: 2.4%, 요식업 및 호텔업: 3.6%)로 유럽에 가장 낮다.

연간 매출액이 75,000 스위스 프랑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사업장은 분기,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 단일화 추진

스위스 부가가치세율은 7.6%(생활필수품 2.4%, 숙박업 등 3.6%)이나 스위스 정부와 경제인 연합은 부가가치세율을 6%로 단일화할 것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숙박 및 소매업 연합회에서는 이원화된 부가 가치세율 유지를 주장하며 숙박 및 식료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그 외 용역 및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6%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스위스 프랑(CHF)은 안정적이고 신뢰적인 통화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다. 정치적, 경제적 변수로 인해 달러나 유로화가 불안정할 때도 스위스 프랑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특히 2008년 이래로의 금융위기에 기인하여 달러화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스위스 프랑의 달러 대비 환율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는 외환의 구입, 매각, 송금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외환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금의 매입, 매각도 완전히 자유롭다. 다만 대외경제 지향적인 스위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 금리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중앙은행이 다양한 금융통화 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관리범위를 사전 공지한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특히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스위스 프랑화의 가치를 위협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나. 자금조달

스위스는 고도로 발달된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설비 등의 투자계획에 대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은행을 통한 중장기 담보대출, 회사운영을 위한 단기신용대출, 벤처 캐피탈 등이 있다.

1) 투자계획 실현을 위한 중, 단기 은행대출

공장설립 등 초기투자 자금대출 신청 시 은행은 투자계획서 및 타당성과 경영자의 경영능력을 검토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공장설립 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동산 가격, 건설 및 설비비용을 포함한 공장 가치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비스업 또는 사무실은 업무의 위험도 및 사업목적에 고려해야 하나 통상 투자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상이하며 기업의 신용도 및 성장 가능성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회사운영을 위한 단기신용 대출

회사운영을 위한 단기신용 대출방법은 담보를 통한 대출과 백지신용 대출이 있다. 대출금액은 기업의 신용도 및 성장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 금융방법으로는 파이낸스 리징과 포페이팅이 있으며, 신생 벤처기업은 은행 이외 금융권 대출, 보증, 전환사채 발행, 유사 벤처 캐피탈 유치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3) 벤처 캐피탈

스위스 벤처 캐피탈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구성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나 공공기관이 24.5%, 보험회사가 33%, 연금이 18.7%, 기관 투자자가 7%를 구성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연방법을 근거로 벤처 캐피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승인된 벤처 캐피탈은 설립 및 증자 시 채권구입 면제를 받으며 연방 직접세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 투자자가 엔젤 투자자로 신생기업 설립 시 자금을 지원하면 연방 직접세로부터 감면을 받는다. 한편 벤처 캐피탈 관련 상세는 정보는 다음 기관에서 열람 가능하다.

- SECA Swiss Private Equity&Corporate Finance(www.seca.ch)

4) 중소기업 재정지원 프로그램

☐ 보증조합(Buergschaftgenossenschaft)를 통한 지급 보증

대출금의 최대 50만 스위스 프랑까지 보증조합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며 연방정부는 이 중 최대 65%까지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

☐ 호텔 대출

스위스 연방정부는 스위스 호텔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호텔 건설 및 운영에 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시행기관으로는 SGH(Swiss society for Hotel Credit)가 있다. SGH는 자금 조달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칸톤정부 경제촉진 기관, 은행 및 관련 협회와 함께 투자 자금을 마련한다.

☐ 산간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이자 지원

스위스 연방정부는 50만 스위스 프랑의 대출금액에 대해 9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보증 및 이자 지원을 보증조합(Buergschaftgenossenschaft)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역 발전 프로그램의 범주에 드는 중소기업 대출을 최고 50만 스위스 프랑선에서 이자의 40%를 최고 6년간 지원한다.

5) 스위스 증권 거래소

스위스 증권 거래소는 안정된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국제적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국제적 생산자, 투자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스톡 마켓을 이끌고 있으며 신생 유망 국제적 기업의 스위스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 증권 시장은 특히 바이오, IT, 마이크로-나노 기술 기업 주식이 강세를 띠고 있다.

6) 금융 비용

스위스는 높은 국가신용 등급을 자랑하고 있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유리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스위스는 저축률이 높아 이자율이 낮은 편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자국 내에서의 자금 조달보다 스위스 내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특성

1) 고품질 시장

스위스는 인구 770만의 소규모 시장이나 1인당 GDP가 6만불대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스위스 경제의 원동력이 수출과 민간소비로 간주될 만큼 기업 및 일반 소비자의 수요 및 구매는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기업 및 일반 소비자는 구매력이 높은 만큼 고품질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추세는 Rolex, Omega 등 명품 시계, Lindt 등 고급 초콜렛이 세계적 명품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의약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보수적인 시장

스위스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시 품질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품질을 확신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위스나 선진국 시장에서 검증된 브랜드 제품이 아니면 스위스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이러한 소비자의 보수성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 국가들과 미국 제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인지도가 있고 산업 및 기술수준이 유사하므로 품질의 우수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3) 까다로운 다문화 시장

스위스 소비자 및 바이어들은 제품 구입 시 고품질, 디자인의 세련성,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엄격히 점검하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하여 전자/전기 제품, 식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 수준을 넘어선 보다 엄격한 기술, 안정, 위생규격이 요구되고 있다.

스위스는 이러한 소비자 및 바이어들의 까다로움과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3개 언어가 통용되는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유럽의 '테스트 마켓'으로 통하고 있다. 즉 스위스 시장에서의 유통 가능성은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스위스 내 거래선 확보는 유럽 전역 진출을 위한 홍보효과가 크다.

4) 환경 및 윤리경영이 중요시 되는 시장

스위스는 환경이 전 분야에 걸쳐 제품의 근본적인 고려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위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업체들은 환경 친화성 및 그린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유기농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Coop, Migros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자체 유기농 제품을 생산 확대하고 있다.

나. 유의사항

1)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 준비

스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품질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스위스 소비자들의 보수성에 입각하여 제품 인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및 우리 제품의 경우 지리적 원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핸드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아직 스위스 시장 진출이 미미하여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낮은 인지도를 상쇄하고 스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이 절실하다.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독일, 미국, 북유럽 등에서의 거래 경험, ISO, CE 등 각종 기술, 위생 및 환경 인증 보유, 친환경성 등을 들 수 있다.

2) 기술, 환경, 위생 규격 등 점검

스위스는 전자/전기, 기계,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 수준을 넘어선 엄격한 기술, 환경, 위생 규격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위스에 첫 진출하는 우리 업체들은 관련 품목에 적용되는 규격 등을 파악하고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스위스 수출 유망 제품인 LED의 경우 CE 인증뿐만 아니라 CENELEC 규격 준수도 중요하다(CENELEC: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http://www.cenelec.eu/Cenelec/About+CENELEC/default.htm> 참조).

3) 품질의 지속성 유지

스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품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품질의 지속성도 중요하다. 취리히 KBC가 접촉하는 스위스 바이어들에 의하면 우리 제품의 테스트용 샘플이 뛰어나 주문하였다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런 경우 재주문은 보통 불가하다고 함.

4) 소량 주문 및 사양 변경에 유연성 중요

스위스는 시장 규모가 작으므로 소규모 주문이 일반적이다. 또한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과 까다로움 때문에 사양이나 디자인을 유연성 있게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흔하다. 따라서 스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량 주문과 사양 변경 등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5) 3개국어로 품질 보증서 준비

스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조건은 사용서나 품질 인증서 등을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의 3개국어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3개 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스위스의 특성 때문인데, 많은 우리 기업들이 높은 시장 진입 비용 때문에 스위스 시장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요소를 갖출 경우 오히려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시장으로의 진출에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

2. 물가정보

(1 US\$ = 1.3 CHF / 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CHF)
식품류	쌀 1kg	2.4
	계란 10개	4.8
	쇠고기 등심 1kg	97
	돼지고기 등심 1kg	20
	우유 500ml	1.05
	식용유 1L	5.6
	생수 1.5L	1.35
	맥주 (하이네켄 50 ml, 6팩)	13.2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7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11.3
	김치찌개 1인분	32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14,4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해당사항 없음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16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40-45,000
	무연휘발유 1L	1.5
	자동차 등록비	4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2,000-2,5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5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지하철 없음
	시내버스 기본요금	2.5
	택시 기본요금	6.2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Swisscom	1.05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Swisscom	3.6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20-30 라펜
	인터넷 월 사용료 (ADSL 기준)	5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8,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5,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30,2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32,4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Hayatt	660(3월), 780(8월)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Adler Hotel	160(3월), 150(8월)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78,000-84,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75,000-8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110,000-12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42.5
	출산휴가일수	4달 (취리히 기준)
	연간 국경일수	12일(취리히 기준)
	주5일 근무 여부	주5일 근무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35 (와이셔츠 포함시:40)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전시회 참가 및 참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에 관한 정보는 '스위스 전시회 협회(Association of Fairs, ASF; www.messenschweiz.ch)' 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보다 상세 정보를 원할 경우 주최 기관을 직접 접촉하면 받아 볼 수 있다.

2) 제품별 해당 협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 스위스 기계·전기·전자·금속엔지니어링 산업 진흥회 (The Swiss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Industries: SWISSMEM): www.swissmem.ch
- 스위스 화학 산업 협회 (Swiss Society of Chemical Industries: SSCI or SGCI): www.sgci.ch
- 스위스 시계산업협회 (Federation of the Swiss Watch Industry: FH): www.fhs.ch
- 스위스 섬유산업연합회 (Swiss Textile Federation: TVS): www.swisstextiles.ch
- 스위스 물류산업협회 (Swiss Association of Logistic: SGL or ASL): www.sgl.ch
- 스위스 플라스틱협회 (Swiss Plastics Association: KVS): www.kvs.ch
- 스위스 환경산업협회 (The Swiss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SVUT): www.umwelttechnik-verband.ch
- 스위스 수입·도매업자 협회 (Federation of Swiss Importers and Wholesale-Traders: VSIG): www.vsig.ch
- 취리히 테크노파크 (Technopark Zurich): www.technopark.ch
- 스위스 건축 기록 협회 (Schweizer Bau Dokumentation): www.baudoc.ch
- 스위스 건강 관리 협회 (Schwiss Health Care): www.swisshealth.ch

3) 전문잡지를 활용

전문잡지 정보는 보통 각 전시회 주최기관의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업체 정보, 신상품 소개, 스위스 시장의 최근 트렌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Consumer Electronics Medias(www.ce-markt.ch): IT 관련 업체 정보
- Boutique(www.etzel-verlag.ch/boutique): 신상품 소개
- Auto Illustrierte(www.auto-illustrierte.ch): 자동차 정보
- OnlinePC(www.onlinepc.ch): 컴퓨터, 인터넷
- Swiss Snowsports(www.snowsports.ch): 겨울철 스포츠
- Handelszeitung(www.handelszeitung.ch): 스위스 경제 주간지
- Swiss Shop(www.detaillisten.ch): 스위스 도/소매업 정보
- IT Reseller(www.itreseller.ch): IT 제품과 시장 동향
- Computerworld(www.computerworld.ch): 컴퓨터 관련 제품과 시장 동향
- TREND(www.trendmagazin.ch): Musik, Mode, Lifestyle, Game 등에 대한 트렌드 소개
- Petri Heil(www.petri-heil.ch): 낚시 관련 정보
- Schweizer Skisport(www.sportart.ch): 스키 관련 정보
- Sport insider(www.iguana.ch): 스포츠 트렌드 정보

- Golf & Country(www.golfandcountry.ch): 골프 관련 정보
- Coop(www.coopzeitung.ch): 유통업체인 Coop사에서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
- Migros(www.migrosmagazin.ch): 유통업체인 Migros사에서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전시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스위스 전시협회(Association of Fairs, ASF)의 홈페이지(www.messenschweiz.ch)에서 각 전시회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각 전시회 주최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지난 해 전시회에 참가했던 업체의 리스트를 제품/지역/위치 별로 분류한 DB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DB 자료에는 통상적으로 업체 홈페이지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바이어 정보 습득이 가능하다.

한편 인근 지역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 규모의 대형 전시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스위스 업체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2) 각종 현지 검색 엔진을 통한 바이어 발굴

- Kompass(www.kompass.ch): 제품, 업체명을 통해 업체 검색 가능(유료)
- Wer Liefert Was?(www.wlw.ch): 제품, 업체명을 통해 업체 검색 가능
- Businesslink(www.businesslink.ch): 비즈니스 검색 사이트
- Gate24(www.gate24.ch): 제품, 업체명을 통해 업체 검색 가능
- Swissfirms(www.swissfirms.ch): 기업 검색 사이트
- Findis(www.findis.ch): 기업 검색 사이트
- Profil(www.profil.ch): 기업 검색 사이트

3) 스위스 취리히 KBC 홈페이지(www.kotra.ch)에 게시된 인콰이어리를 통한 바이어 발굴

KBC 에는 우리 제품 구입을 희망하는 스위스 기업들의 납품 가능 업체 주선 요청이 자주 접수된다. 이런 경우 KBC 는 스위스 업체의 구입 관심품목을 KBC 홈페이지(www.kotra.ch)에 소개하고 있으며 납품 가능 희망업체는 KBC 를 접촉함으로써 바이어 발굴이 가능하다.

4) 기타

국내 진출 스위스 업체 협회(Swiss-Korean Business Council)의 홈페이지(www.skbcckorea.org)에서도 우리나라와 거래하고 있는 스위스 바이어의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에티켓

1) 복장

스위스인의 비즈니스 복장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검소한 편이며, 고위 관리직, 회사 및 금융권 종사자는 고급 정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상담에 임할 때는 넥타이를 맨 깔끔한 정장차림이 바람직하다.

스위스인이 상대방의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이 신발의 청결 상태다.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잘 닦여진 좋은 구두를 신도록 하고, 절대로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된다. 손톱을 깨끗이 깎고 잘 다려진 셔츠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위스인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사업에서도 철저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인사

스위스에서는 사람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 남녀 모두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한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최대한 격식을 차려 Herr(Mr.), Frau (Mrs. Ms) 등을 이름 앞에 붙여 성을 부르고 상대방이 박사학위 소유자 또는 교수, 의사인 경우 성 앞에 호식을 반드시 붙여 불러야 한다. 첫 인사를 교환하면서 명함을 건네는 것도 일반화 되어 있다.

3) 선물

스위스에서 업무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스위스의 많은 기업들은 자사 직원들에게 비즈니스상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스위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선물을 주고자 할 때는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야 뇌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없다.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트너를 저녁식사에 초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성사시킨 후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면 한국산 수공예 제품 정도를 준비하면 충분하다. 선물은 반드시 포장을 해야 하며, 만약에 선물을 받았다면 선물을 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포장을 풀어보고 후에 감사의 글이나 전화를 하는 것이 예의이다.

집으로 저녁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와인 한 병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훌륭한 수제 초콜릿도 항상 환영 받는다.

4) 약속잡기, 시간 및 준비성

약속은 적어도 3 주 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약속 4~5 일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스위스에서는 약속시간을 지키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스케줄과 미팅 일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고, 약속시간 몇 분전에 미리 도착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반드시 연락을 취하여 늦는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는 것이 좋다.

한편 비즈니스상 첫 만남 시는 자사 및 자사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만남의 목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한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

5) 식사

비즈니스 런치에서 ‘각자 지불(Dutch pay)’은 상가 해야 한다. 대화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번갈아가면서 식사비를 지급하고 다음 식사에 대접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명확하게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위스인 중에는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채식만 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식사 초대를 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배려한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문화적 금기사항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으나,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웃 주민들에 의해 고발될 수 있다. 선진국답게 모든 체제가 법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규제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법적인 규제들이 오랜 기간 문화적인 금기사항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해당 문화적 차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대화에서 가급적 화제로 삼아서는 안 되는 주제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었던 유대인 계좌 문제를 비롯한 스위스 은행 비밀구좌 스캔들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인들은 자국 은행 시스템을 화제화하는 것에 민감하다.

스위스는 의외로 다민족 다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나라이다. 스위스 거주민의 약 20%정도는 스위스 국적인이 아니며 국적인이라 하더라도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인종관련 발언이나 특정 문화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 상담/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우리업체는 품질도 뛰어나고, 가격경쟁력도 있지만 1% 부족으로 스위스 고객에게 아쉽게도 어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소들 중에는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스위스 현지 업체 방문상담 중 “한국 업체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이어의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1) 바이어의 마인드로 뛰어들자.

바이어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품만 판매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바이어 입장에서 고객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입장을 바꿔 상대방의 마케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스위스 바이어들이 자주 강조하는 사항은 다음의 두가지이다. ‘스위스 시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양을 주문할 수 없고 소량으로 자주 주문해야 하는데 괜찮겠는가?’와 ‘고객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오래 소요된다’이다.

실제로 스위스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우리업체는 테스트를 위한 샘플을 보낸 후 3개월 후에 스위스 바이어로부터 소량의 주문을 받았는데, 해당 우리업체는 스위스 바이어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협상에 임하면 스위스 바이어는 의외로 적극적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화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

필요한 사항과 상대방의 마케팅 애로 점에 대해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끈끈한 사업파트너로 발전하게 된다.

2) 스위스 고객 눈높이에 맞는 소개서를 제작하자.

취리히 KBC 가 방문한 스위스 업체의 담당자 다수는 우리업체의 제품소개서가 산만하고 고객의 주목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언급했다. 스위스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스위스 식 3 단계 제품 소개서(유럽 대부분의 나라도 같을 것으로 예상됨) 제작이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 1 단계(의사 타진용)

1 단계 제품소개서는 접어서 편지봉투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복사용지(A3) 1 매 정도가 적당하며 전체 제품을 종류별로 묶어 사진을 나열하고 특징을 설명한다. 일단 한눈에 들어와야 하며 간단 명료해야 한다.

한편 고객에게 첫 접촉 시에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제품사진을 중심으로 꾸민다.(회사 이력은 물론이고, 생산업체일 경우는 반드시 생산자라는 표기를 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스위스 바이어들은 우리업체의 홈페이지를 보서는 생산자와 도매상을 잘 구별하지 못했으며 홈페이지가 대부분 지나치게 화려하여 상대적으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 2 단계(관심고객 확보용)

2 단계 제품소개서는 제품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관심 고객용으로 주로 우리 업체들이 사용하는 카탈로그와 형태가 일치한다. 제품 종류별로 사진을 위주로 나열을 하고 간단한 설명과 제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관심고객에게 일일이 방문을 하며 샘플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사진이 매우 중요하다.

□ 3 단계(테크닉노트, 샘플)

1·2 단계를 통해 고객과 구체적으로 원하는 제품이 선택되면 3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의 소개서와 샘플이 필요하다. 마케팅 담당자가 기술적인 상세부분을 숙지할 수 없으므로 제품별로 복사용지 한 장 분량의 테크닉 노트가 필요하며, 가능한 심플한 테크닉 노트가 적당하다. 한편 해당 분야 선도기업 제품과의 비교표가 있으면 바이어를 설득시키기에 매우 효율적이다.

3 단계로 분류하여 소개서를 제작함으로써 비용부담은 있으나, 2·3 단계의 소개서는 이미 국내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며 1 단계(의사 타진용)만 추가적으로 제작하면 된다. 대부분의 우리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2 단계(잠재고객 확보용) 소개서를 1 단계(의사 타진용) 소개서로 대체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초 접촉 시 비용손실이 크다. 따라서 2 단계 제품소개서의 내용으로 제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1 단계 제품소개서를 준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회사 이미지에 신경을 쓰자

스위스 바이어 입장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중국과 대만 등 기타 아시아산 대비 가격 경쟁력의 매력이 없다. 이를 인정하고 회사의 규모, 매출액, 종업원, 에이전트 현황, 각종 수상 경력, 전시회 참가 경력 등을 설명함으로써 업체와 제품 품질에 신뢰감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신제품일 경우 국내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이에 따른 우리

제품의 매출비중과 유럽시장에 최초 진출할 경우 선도업체로서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기존 제품의 경우는 다른 저가제품과의 비교 설명, 신상품 출시 계획, 유럽 내 전시회 참가 의지 등을 이해시키면 반응이 좋을 수 있다.

스위스 바이어들은 복장, 용모, 명함을 건네주는 방법에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비즈니스에서는 보수적인 면이 많으며 구두로 의견교환이나 약속 후에는 가능하면 메일로 정리를 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개요

스위스는 자유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선진국 중 하나이며, 제도 정비가 잘 되어 있어 무역/투자 진출 시 특별한 애로사항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업 성사까지 철저한 준비와 시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준비와 시간관리가 필요한 시장

스위스인들은 시간 개념이 정확하며 비즈니스에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인상을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상담일정을 잡기 전에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담의 가치를 점검한 후 일정을 잡는다. 일정이 잡히면 논의될 주제가 미리 정해져야 하며, 이의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상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상담 후 실제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데, 이는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고 불확실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비즈니스 스타일 때문이다. 스위스 바이어가 먼저 연락을 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며, 상담 후 약 3~4개월 후에 업체로부터 첫 연락이 오는 경우가 흔하다. 스위스 바이어들은 구매 계획도 미리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 진행하며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장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 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바이어가 요청하는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위스 바이어들과는 가격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스위스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는 최고 적정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가격조건이 좋아도 품질에 대한 확신과 거래업체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전제 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반대로 스위스 바이어는 현실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품질이 좋다는 시장 반응이 감지되면 기존 거래선이 있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한다.

스위스 바이어들은 인간 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규범적이며 법규 및 계약에 의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계약체결, 상담 체결 시 서류상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스위스 기업인들은 상담을 위해 상대방이 제시하는 자료를 매우 꼼꼼히 체크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한 후에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습관이 있으므로 가능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자료상의 오타(업체명이 앞뒤 페이지에서 다르게 나오는 등) 또는 내용상의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상담 시 수치를 인용할 경우 정확하고 일관된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

상담 시 특히 어려운 점은 언어문제라 할 것이다. 독일어권 지역에서는 독일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며 불어권 지역에서는 불어 또는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 업체들은 통상 영어로 된 제품소개서를 구비하고 있으나 스위스 현지에서 사용되는 독일어 혹은 불어 설명서가 추가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제품소개서가 영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제품이 스위스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로 된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이 점은 많은 스위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업체들에 있어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위스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향후 기회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에는 많은 대행업체(agents)가 있으며 한 상품 또는 특정상품군의 전문 취급업체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 진출경험이 없거나 현지 디스트리뷰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커미션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이 스위스 시장의 협소함과 광고비용 지불 조건 때문에 독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에이전트 기간, 해약 시점, 지역별 안배, 광고비용 등 관련사항을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한다.

한편 홍콩과 대만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스위스의 대형 유통업체 구매본부를 통하여 대 스위스 진출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시아에 구매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유럽업체의 특성상 스위스 본사는 구매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아시아지역 구매 매니저 접촉이 수출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다. 그러나 제품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EU규정에 따른 CE마크 획득은 필수적이며, 화장품 등 화학제품의 경우 함유성분이 허용치 범위 내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수도 있다. 바이오테크의 경우 업계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마크도 있다. 제품에 따라 규정된 보증 기간과 이의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꼼꼼한 품질관리와 필요 인증 확보를 통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스위스 시장특성을 살린 시장진출 성공사례: 고품질과 틈새 시장 진입 성공으로 스위스 시장에 정착

우리나라의 섬유산업 중심지인 경북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S사는 고품질 특수 원단 생산을 전문으로 하면서 수출 활로 개척을 모색하고 있었다. 특히 유럽 진출에 필수적인 품질 인증을 획득하고 기존 수출 거래 경험을 활용하여 유럽 시장 성격을 공들여 파악하였다.

이 기업의 주력 상품은 최고의 품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소방복 원단 및 완제품인데, 화학 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 시장에서 직물에 특수 처리를 해야 하는 소방복 분야는 그야말로 틈새 시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S사는 2006년 시장개척단에 참가하여 취리히 KBC가 주선한 스위스 바이어와 첫 상담을 성사시킨 후 품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데 성공하였고, 2009년까지 꾸준한 납품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프랑스 시장으로의 진출이 성사단계에 있는 등 인접 유럽국가로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S사가 납품하고 있는 바이어는 관련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바이어이며, 이를 통해 품질의 우수성을 보장 받는 효과까지 누림으로써 향후 수주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 스위스 시장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시장진출에 실패한 사례: 과점 시장구조에 시장 진입 불가

유압 브레이커를 생산하는 J사는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동남 아시아, 중동, 북미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고 터키의 현지공장 설립과 더불어 유럽시장 공략의 첫 단계로 스위스 시장진출을 추진하였다.

스위스 유압 브레이커 시장은 스위스 자체 생산은 없고 대기업인 독일 S사와 스웨덴 V사가 유통계를 장악하고 부품 등도 전량 공급하는 과점 체제로서 어떠한 수입상도 해당 독일 및 스웨덴 업체의 제품 이외에는 취급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 J사는 터키에 공장이 있어 적기 딜리버리 및 AS 등이 수시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스위스 유압 브레이커 취급업체들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새로운 제품을 취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J사와 취리히 KBC의 수 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진출이 좌절되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구하기

스위스는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소유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어 주택 임차가 보편적이다. 취리히 시내에서 침실 3개, 응접실 1개, 부엌 등 4인 가족용 아파트의 월임차료는 2,400~5,000 스위스프랑 수준에 달하고 있다.

스위스에서의 주택임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임차방식보다는 임대료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하면, 이를 보고 찾아오는 임차 희망자 중에서 주택 소유자가 희망 임차인을 심사하여 선택한다(대표적 주택 광고 사이트: www.homegate.ch).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약 3개월 치 임차료를 보증금으로 선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임차 계약이 끝나면 주택 파손, 수리 필요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환급 하므로 계약에 서명하기 전 집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스위스 이사 시즌은 4월과 10월로 간혹 임차 계약서 계약 해지 가능 기간을 4월 또는 10월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한다.

나. 주택관련 보험

임차인 과실로 주택 및 비품에 화재 등 파손/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과 이웃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며, 계약종료 시 원상 회복을 위한

비용소요에 대비하는 방편도 되고 기타 자신의 재산(가구, 귀금속 등)에 대하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 체류허가 신청절차

스위스에서 90일 이상 체류목적인 경우 주한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입 국 후 거주지 소재 동사무소(Gemeindehaus)에 체류허가를 신청한다. 체류허가 신청 시에는 비 자발급 통지서, 여권,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하며, 체류허가증은 신청 후 2주 정도 후 발급된다.

라. 은행구좌 개설

UBS, Credit Suisse 등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며 외국인이라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구좌개설이 가능하다. 단 구좌개설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체류허가증(Auslaender-ausweis)을 취득한 후 가능하다.

마. 전화신청

Swisscom 매장에서 유선 및 무선 전화 개통을 신청할 수 있다. 유선 전화 신청 시에는 500 스위스 프랑을 예치해야 하며, 전화가설에는 보통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Express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통화가 가능하다. 단 Express 신청 시에는 추가 가설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Swisscom 외 전화 사업자는 Sunrise, Orange, Cablecom 등이 있으며 유선 전화뿐만 아니라 유 무선 인터넷 개설 서비스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히 정보를 수집한 후 신청한다.

바. 자동차 구입

스위스는 자동차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차종이 운행되고 있다.

신차 구입을 희망할 경우 차량 메이커별로 딜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현대 자동차의 경우: www.alcadis.ch).

중고차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어 중고차 구입도 용이하다. 딜러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격과 사양을 비교해 본 후 직접 방문 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구입한다.

사. 운전면허증 교환

국내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운전면허증을 스위스 주재 한국 영사관에 번역공증 요청한다. 이후 면허증 원본, 번역공증 및 체류허가증(신분증)을 관할 지역 교통청에 제출하면 스위스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하다.

스위스 내에서는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입국 후 1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으며, 입국 후 1년 후 반드시 면허증 교환을 해야 한다.

아. 우리 제품/식료품 구입

스위스에는 주재원 유학생 포함 체류 교민이 1,500~2,000명 정도에 불과하여 우리 식료품 등을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관련 정보는 스위스 한인연합회 홈페이지(www.swisskorea.com)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특성

연평균 섭씨 9도이며, 춘하추동 4계절이 뚜렷하나 계절별 기온차가 적어 비교적 온난한 기후이다. 가장 더운 7월 중 평균온도가 섭씨 18~22도, 가장 추운 1월 중 평균 기온은 0~2도 정도이다. 최근 수년 간 지구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온난화 현상으로 여름에 기온이 30도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전반적으로 알프스 산악지역은 겨울철 높은 적설량을 보이며, 핀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하루 중에도 변화무쌍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산악지역 기후의 특색이기도 하다.

주요 도시 월별 평균 기온분포

도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네바	-2.6 3.7	-1.5 5.9	0.1 9.8	3.0 13.9	6.9 18.4	10.0 22.2	11.9 25.3	11.3 24.4	8.6 20.8	5.2 14.9	1.1 8.4	-1.5 4.5
인터라켄	4.3 2.3	-3.0 4.5	0.6 8.7	2.6 12.8	6.6 17.4	9.7 20.5	11.7 22.9	11.2 21.9	8.6 18.9	4.5 13.8	-0.2 7.3	-3.0 3.1
로잔	0.7 3.5	0.3 5.2	2.5 8.7	5.4 13.0	9.3 17.3	12.4 21.1	14.7 24.2	14.2 23.1	11.7 19.5	8.1 14.1	3.3 7.9	0.3 4.3
루체른	-2.6 2.8	-1.4 4.8	0.7 9.2	3.9 13.3	7.9 17.9	11.0 20.9	13.1 23.5	12.6 22.6	10.0 19.3	6.1 13.7	1.5 7.5	-1.4 3.8
루가노	0.1 6.0	1.5 4.0	-2.6 11.6	7.3 14.9	10.9 18.8	14.1 23.0	16.8 25.8	16.1 24.8	13.3 21.3	9.2 16.5	4.3 10.8	1.5 7.1
체르마트	-8.0 5.0	-7.0 7.0	-7.0 10.0	-2.0 13.0	2.0 14.0	6.0 17.0	9.0 23.0	7.0 19.0	6.0 16.0	0.0 9.0	-3.0 6.0	-7.0 2.0
취리히	-2.6 2.1	-1.7 4.3	0.8 8.4	3.9 12.6	7.9 17.4	11.0 20.6	13.0 23.0	12.9 22.1	10.2 18.9	6.4 13.4	1.6 7.0	-1.7 3.1

자료: 스위스 관광청.

2) 출장 시 추천복장

시내지역은 외곽에 비해 한 겨울에도 1~2도 정도 기온이 높으며 한 여름에도 일교차가 크지 않으므로 기후 적응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산악지역은 한 여름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수 있으므로 산악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상응하여 복장을 준비해야 한다. 융프라우 등 유명 산악지를 방문하고 노약자 및 유아를 대동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평지보다 기온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해발 2,000~4,000미터로 고도가 매우 높으므로 자외선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 -8시간으로서 우리나라가 17:00이면 스위스는 09:00가 된다. 단 여름철(보통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에는 서머타임 실시로 우리나라와의 시차가 7시간으로 짧아진다. 즉 우리나라가 16:00이면 스위스는 09:00시가 된다.

2)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평일은 08:00~17:00근무가 보편화 되어 있으며, 일부 기업은 7:00시 혹은 7:30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사무직의 경우 주 40~42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다.

토요일은 휴무이며 일반 상점만 개점한다. 상점의 토요일 개점시간은 시내 중심가일 경우 08:00시부터 18:00시까지 이다. 변두리 지역의 경우 토요일에 문을 닫는 상점이나 오전까지만 개점하는 경우도 흔하다.

일요일에는 전국의 모든 상점 및 사무실이 휴무한다. 그러나 유동 인구가 많은 기차역과 공항 내 상점 및 특별 허가를 받은 식료품 매장은 일요일에도 영업한다. 공항, 기차 역 내 상점은 매장에 따라 다르나 21시까지 영업하는 곳도 있다.

다. 주요 단위

국제 기준에 따라 거리의 경우 미터법(m)을, 무게 단위로서는 킬로그램(kg)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우리나라와 스위스간에는 1979년 6월에 일반 사증 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3개월(90일) 미만 체류 시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미리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각 주정부 및 외사 담당 경찰서 등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해야만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신청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며, 입국대상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소정의 비자 신청서, 체류목적명세서, 근무처확인서, 체재비용 부담에 관한 증빙서(고용계약서), 세금납부증명서, 무범죄경력 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비자 획득 기간은 본국 조회절차를 거치며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한편 스위스는 2009년에 들어 쉥겐(Schengen)협약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스위스뿐만 아니라 쉥겐협약 가입국(영국, 아일랜드를 제외한 EU 회원국 및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FTA 회원국)에서의 체류 기간까지 합산 하여 총 3개월이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이 된다.

2) 비자 발급처

- 발급처: 주한 스위스대사관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32-10
- 전 화: 02-739-9511/4
- 팩 스: 02-737-9392
- 홈페이지: www.eda.admin.ch/seoul.html
- E-메일: swissemb@seo.rep.admin.ch
- 휴일: 토요일, 일요일, 양국 국경일
- 주의 사항: 평일에도 비자발급 영사업무는 주로 오전 중에 이루어지며, 사전예약을 요구하고 있어 반드시 사전에 대사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방문하는 것이 필요함.

3) 출입국 절차

여권 및 비자 확인만 할 뿐 통관절차는 지극히 간소하며 세관신고는 자기 신고를 위주로 하고 있다. 공항 통관대에는 붉은등과 푸른등이 켜있는 두 개의 입구가 있는데 붉은등 쪽은 세관 신고가 필요한 입국자의 통관대이며 특별히 세관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푸른등 통관대를 이용하면 된다.

4) 면세품 보유한도

- 담배: 200 개비
- 알코올 15% 초과 주류: 1 리터(알코올 15%까지: 2 리터)
- 선물용품: 300 스위스프랑 이내

5) 출입국 유의사항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으나 푸른등 통관대에서도 가끔 입국자별로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관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소지한 입국자는 붉은등 통관대를 이용해야 한다.

입국 시 특별한 예방접종 확인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천연두 감염지역에서 오는 경우에는 국제 천연두 접종 확인서가 필요하다.

출국 시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기념품으로 구입하는 경우, 기내 휴대 반입이 불가하다. 최근에 보안 검색이 강화되어 액체 물품의 기내 휴대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특히 스킨 로션, 치약 등 액체성 개인 용품은 용량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총 1리터 범위까지 기내 반입할 수 있는데, 투명한 봉지에 밀봉하고 육안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허용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패트병에 든 생수는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

면세 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은 면세점에서 밀봉 포장을 해주는데, 이것을 개봉하지 않으면 기내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타 유럽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경우 면세 점에서 구입, 밀봉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환승시 재차 거쳐야 하는 검색 과정에서 기내반입이 불허된다.

6) 공항- 시내 이동

스위스에는 취리히, 제네바, 바젤에 국제공항이 있다.

취리히 공항(Zurich Airport)에서 시내로의 이동은 철도의 경우 공항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시내까지 기차, 버스는 5 스위스프랑, 택시는 약 50-60스위스프랑이 소요된다.

제네바 공항(Geneva Airport)에서 시내로의 이동은 철도의 경우 공항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기차, 버스는 5스위스 프랑, 택시는 약 30 프랑이 소요된다.

바젤(Basel Airport)의 경우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버스는 5스위스 프랑, 택시는 약 30 스위스프랑이 소요된다.

마. 환율/환전

1) 화폐단위

화폐단위는 스위스 프랑으로서 약칭은 CHF이며, 1스위스 프랑은 100 라펜(Rappen)이다. 지폐에는 10, 20, 50, 100, 200 및 1000 스위스 프랑이 있으며, 주화에는 5, 10, 20 라펜 및 1/2, 1, 2, 5 스위스 프랑이 있다.

스위스는 EU 가입국이 아니나 유로화는 슈퍼 및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된다. 그러나 거스름 돈은 스위스 프랑으로 받게 되고 환율도 좋지 않으므로 스위스를 방문할 경우 소액은 스위스 프랑화로 사전에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환율

스위스 프랑은 2008년 하반기 이후로 달러 대비 꾸준히 증가해 왔다(2008년 달러 대비 스위스 프랑의 평균 환율: 1 달러 = 1.0812 스위스 프랑). 2009년 들어 1달러는 1.1-1.2 스위스 프랑선에 머물고 있으며 9월의 경우 1달러는 약 1.14 스위스 프랑선이다.

3) 환전

공항 및 기차역, 시내 중심가 등 주요 지역에 은행이 있어 손쉽게 환전이 가능하며, 각 철도역의 철도공사(SBB)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수수료와 환율 측면에서 저렴하다.

호텔 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나 통상 6~10% 정도 불리한 환율이 적용된다. 은행을 통해서 환전할 때에는 환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4)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기는 하나 상점에 따라서 취급하는 카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많이 통용되는 카드는 마스터, 비자, 다이너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이다.

신용카드 분실 등 긴급 시 연락번호는 아래와 같다(스위스 내에서 전화할 경우).

- 비자카드: 0800 89 47 32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0800 25 52 00
- 다이너스 클럽: 01 835 45 45
- 마스터 카드: 0800 89 70 92

바. 교통/통신

1) 공항 및 항구

스위스에는 취리히(www.zurich-airport.com), 제네바(www.gva.ch/en), 바젤(www.euroairport.com) 등 3곳에 국제공항이 있다.

한편 스위스는 내륙국으로서 국제항구가 없으며, 바젤이 라인강에서 로테트담까지 잇는 유일한 내수로 항구이다.

(참조: www.portofbasel.ch).

2) 스위스-우리나라 운항 정보

- 직항편
 - 대한 항공에서 인천-취리히 구간을 하계(4~10 월) 3 회(화, 목, 토), 동계(11~3 월) 2 회(화, 토) 운항: www.koreanair.co.kr
- 유럽 항공 경유편
 - Air France(매일): www.airfrance.co.kr
 - Alitalia(수, 금, 일): www.alitaliakorea.com
 - Emirates Airline(화, 목, 금, 토, 일): www.emirates.com/korea/kr
 - KLM(매일): www.klm.co.kr
 - Lufthansa(매일): www.lufthansa-korea.com
- 아시아 항공 경유편
 - Japan Airline(월, 화, 수, 금, 토, 일): www.jal.co.kr
 - Singapore Airline(월, 화, 금, 토, 일): www.singaporeair.com/kr
 - Thai Airways INT's(매일): www.thaiair.co.kr
- 스위스 내 항공권 가격 비교 및 구매 정보: www.ebookers.ch

3) 시내 대중교통

시내교통 수단으로서는 버스, 전차, 내수교통용 보트 및 우체국에서 운행하는 버스 등이 있다.

버스 및 전차는 자동티켓 판매대에서 승차 전에 티켓을 구입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30분용(5정거장 내 유효, 2.40 스위스 프랑), 1시간용(3.80 스위스 프랑), 24시간용(7.60 스위스 프랑) 티켓이 있으며, 동일한 티켓으로 버스와 전차, 보트 등 대중교통 수단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자동티켓 판매대에서 티켓 구입 시 판매대 하단 왼쪽에 있는 티켓 체크대에 티켓을 넣고 스탬프를 취득 해야만 승하차 시 유효하다. 검표는 승객의 자유훈에 맡겨지나 수시로 불시 점검이 있으며 적발 시 80 스위스 프랑의 벌과금 및 기타 업무비용이 부과된다.

4) 택시

택시의 경우 회사별, 택시종류(공항, 일반)별, 도시별로 요금이 달리 운영되나 기본 요금이 5~7 스위스 프랑이며, Km당 3~4 프랑이 추가된다.

승객 수와 소지물품의 양에 따라 요금이 추가될 수 있다. 시내 주요 지역별로 설치되어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콜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5) 철도

스위스는 총 5,000Km의 철도노선과 1,800개의 역을 구비하여 유럽 내에서도 가장 잘 정비된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주요 산악철도를 포함하여 약 2,000km의 사설철도는 약 100개에 달하는 사설철도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 국민의 철도이용은 1인당 연간 1,600km로 유럽에서 가장 높으며, 이는 스위스의 철도교통 시간이 정확하고 안락함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기차는 1등칸 및 2등칸으로 나뉘며 기차 종류별(정차 빈도 별)로 지방철도(local train; Regionalzug), 급행(fast trains; Schnellzug), 도시간 철도(Intercity; IC), 유로 철도(Eurocity; EC)로 구분된다.

시속 300Km의 프랑스 고속철도 TGV가 매일 베른, 제네바, 로잔, 노이샤틀에서 파리로 운행 되고 있으며, 제네바-파리간을 3시간 반에 운행하고 있다. Intercity는 스위스 주요 도시간 운행하는 급행 열차이며 Eurocity는 유럽 200개 주요도시와 스위스 도시를 잇는 국제 열차편이다.

최근 스위스는 철도망 근대화 및 확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이 1990 년부터 취리히에서 운영하고 있는 S-Bahn suburban train서비스이다. 동 열차편에 13억 스위스 프랑이 투자되었으며 매일 약 20 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철도청(SBB)은 서비스가 우수한 편이며, 철도여행객 유치를 위해 유럽 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패키지형 철도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스위스 철도청의 홈페이지(www.sbb.ch, 영문지원)를 접속하면 열차편 검색 및 예약이 가능하다.

6) 국내 통신

전화요금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비싼편으로 60 라펜이 기본이며, 사용 시간대에 따라 차별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 요금 적용 시간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경우 06:00~13:00 시간대이며, 평일의 기타 시간대 및 토요일과 일요일은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핸드폰 사용의 보편화로 공중 전화기는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중앙역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동전 투입식과 카드식 두 종류가 있다. 카드식 종류의 공중전화기의 경우 Swisscom에서 발행하는 전화카드(5, 10, 20프랑 등)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이한 사항은 스위스 국내전화를 걸 경우에도 지역번호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는 점으로, 취리히(지역 번호 01)에 사는 사람이 취리히내 지역으로 전화를 걸 경우에도 취리히 지역 번호인'044'를 먼저 입력해야 한다.

스위스 내 대부분의 공중전화는 국제전화가 가능하다. 전화번호 안내는 국내전화의 경우 111, 국제전화 안내의 경우 191이다. 한편 독일 및 오스트리아 지역안내는 192로 문의해야 하며, 프랑스 지역은 193으로 문의해야 한다.

7) 국제통신

통신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국제통화에 별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와 스위스 간 국제전화는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 스위스에서 서울로:
 - 00 (국제전화 호출), 82 (한국), 지역번호(최초의 0 은 불필요), 수화자 번호
 - 예) 서울 내 987-6543 로 전화할 경우: 00-82-2-987-6543
- 한국에서 스위스로:
 - 001 또는 002(국제전화호출), 41(스위스), 지역번호(최초의 0 은 불필요)순
 - 예) 취리히 내 01/ 456-7890 로 전화할 경우: 001(또는 002)-41-1-456-7890
- Collect Call (수신자 부담 요금)
 - DACOM: 0800-56-3671(접속 전화번호)
접속 전화번호를 돌린 다음 나오는 안내방송에 따라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 KT: 080-055-7667 (접속 전화번호)
접속 전화번호를 돌린 다음 나오는 안내방송에 따라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 선불카드
 - DACOM: 0800-563671(접속 전화번호)
 - KT: 080-055-7667(접속 전화번호)

접속 전화번호를 돌린 다음 나오는 안내방송에 따라 카드번호 및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8) 우편제도

스위스의 우편 및 체신제도는 여타 유럽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국영인 스위스 체신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스위스의 일반우편은 A-Post와 B-Post 2종으로 구분되며, 국내의 경우 A-Post는 발송 하루 만에 B-Post는 2~3일만에 배달된다.

보통 스위스-유럽 간 우편 소요일수는 약 2~5일, 여타 지역으로 발송 시에는 약 4~10일 정도 소요된다. 보다 신속하게 우편물을 보내고자 할 경우에는 속달 우편인 'Express mail'을 이용하면 된다.

소포의 경우 항공 우편(air mail), 선편(surface mail) 혹은 두 가지의 복합방식인 국제우편 서비스(surface air lifted(SAL) packet) 로 송부할 수 있다. 소포를 항공편으로 송부할 경우 일반 우편물의 항공편과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며, 국제우편 서비스(SAL)방식은 유럽 이외 지역으로 송부되는 소포를 항공편으로 우송한 후 도착지에서는 보통의 육상운송으로 배달하는 것으로 대략 10~25일이 소요된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스위스의 호텔은 ‘www.tophotels.ch’를 통하여 자신의 기호 및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호텔들을 검색 및 예약할 수 있다. 한편 취리히 지역은 취리히 관광청 공식 웹사이트 (www.zuerich.com)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며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다.

호텔요금은 매우 비싼 편으로서 5성급 싱글룸의 경우 통상 260불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취리히KBC 할인요금을 적용해도 싱글룸 기준 150불 이상이다. 보통 한국의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는 것이 스위스 현지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며 가격은 시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취리히KBC 홈페이지 좌측 배너 “호텔-통역 예약정보”에 여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호텔을 소개하고 있다

(참고: 취리히 KBC홈페이지 www.kotra.ch).

취리히 지역 주요 호텔정보

5성급 호텔	
Baur au Lac	연락처: +41-44-220-5020 위치: Talstr. 1, 8022 Zurich 홈페이지: www.bauraulac.ch
Dolder Grand	연락처: +41-44-456-6000 위치: Kurhausstr. 65, 8032 Zurich 홈페이지: www.hoteldolder.ch
Hilton Int'l	연락처: +41-44-828-5050 위치: Hohenbühlstr. 10, Opfikon-Glattbrugg, 8152 Zurich 홈페이지: www.hilton.de/zurich
Marriott	연락처: +41-44-360-7070 위치: Neumühlequai 42, 8001 Zurich 홈페이지: www.marriott.com/property/propertypage.mi?marshaCode=ZRHDT
4성급 호텔	
Ambassador	연락처: +41-44-258-9898 위치: Falkenstr. 6, 8008 Zurich 홈페이지: www.ambassadorhotel.ch
Dolder Waldhaus	연락처: +41-44-269-1000 위치: Kurhausstr. 20, 8032 Zurich 홈페이지: www.dolderwaldhaus.ch
3성급 호텔	
Leoneck	연락처: +41-44-254-2200 위치: Leonhardtstr.1 8001 Zurich 홈페이지: www.leoneck.ch

제네바 지역 주요 호텔정보

5성급 호텔	
Hotel Intercontinental	전화: 022-919-3939 위치: Ch.Petit-Saconnex 7-9, 1211 Geneva
Hotel des Bergues	전화: 022-731-5050 위치: q. Bergues 33, 1211 Gene
De la Paix	전화: 022) 732 6150 위치: 11 quai du Mont-Blanc
4성급 호텔	
Hotel Ambassador	전화: 022) 731 7200 위치: q. Bergues 21-pl Chevelu 1-3, 1211 Geneva
Movenpick	전화: 022-798-7575 위치: r. de Pre-Bois 29

로잔지역 호텔 정보

5성급 호텔	
Beau Rivage Palace	전화: 021-613-3333 위치: 1006 Ouchy-Lausanne
Lausanne Palace	전화: 021-331-3131 위치: Grand Chene 7-9
4성급 호텔	
Chateau d'Ouchy	전화: 021-616-7451 위치: pl. du Port 2
Mirabeau	전화: 021-320-6231 위치: av. du la Gare 31

베른 지역 호텔정보

5성급 호텔	
Bellevue Palace	전화: 031-320-4545 위치: Kochergasse 3
Schweizerhof	전화: 031-311-4501 위치: Bahnhofplatz 11
4성급 호텔	
Ambassador	전화: 031-370-9999 위치: Seftigenstr. 97 - 99
Bern	전화: 031-312-1021 위치: Zeughausgasse 9

바젤 지역 호텔정보

5성급 호텔	
Basel Hilton	전화: 061-271-6622 위치: Aeschengraben 31
Swissotel Basel Le Plaza	전화: 061-692-3333 위치: Am Messeplatz 25Bahnhofplatz 11
4성급 호텔	
Basel	전화: 061-264-6800 위치: Munzgasse 12
Drachen	전화: 061-272-9090 위치: Aeschenvorstadt 24

2) 식당

☐ 한식

한식의 경우 메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30~40 스위스 프랑이 소요되며, 저녁 뷔페의 경우 약 50~60 프랑이다. 취리히의 한국식당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고려정(Korea Pavillion)
 - 주소: Badenerstrasse 457, Zurich
 - 전화: +41-44-492-3332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6 번(또는 7 번, 13 번) 전차를 타고 Paradeplatz 하차 후, 2 번 전차로 갈아탄 다음 Letzigraben 역에서 하차(총 30 분 소요)

- 대나무집(Bambushain)
 - 주소: Vogelsangstr. 33, 8006, Zurich
 - 전화: +41-44-363-2228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10 번 전차를 탑승 후 Winkelriedstrasse 에서 하차(총 20 분 소요)
- 유미하나(Yumihana): 한국식품점 및 Take-out 점
 - Schuetzengasse 7, 8001 Zurich
 - 전화: +41-44-750-5161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Bahnhofstrasse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후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총 도보 3 분)

□ 중식

중식의 경우도 메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30~40 프랑 정도가 소요된다.

- China Garden
 - 주소: Schuetzengasse 12, 8001 Zurich
 - 전화: +41-44-211-7100
 - 홈페이지: www.china-garden.ch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도보로 5 분
- Suan Long
 - 주소: Selanuerstrasse 32, 8001 Zurich
 - 전화: +41-44-242-1168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6 번(또는 7 번, 13 번) 전차를 타고 Paradeplatz 하차 후 8 번으로 갈아탄 다음 Selnau 역에서 하차(총 13 분 소요)

□ 일식

일식의 경우 스위스 내에서도 비싼 음식에 속해 면류를 제외하고는 통상 40~50프랑 정도가 소요된다.

- Restaurant Takano
 - 주소: Uetlibergstr.166, 8045 Zurich
 - 전화: +41-44-463-2228
 - 홈페이지: www.takano.ch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13 번 전차를 탑승 후, Waffenplatz 역에서 하차(총 20 분 소요)
- Fujiya of Japan
 - 주소: Tessinerplatz 5, 8002 Zurich
 - 전화: +41-44-208-1555
 - 홈페이지: www.fujiya.ch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6 번(또는, 7 번, 13 번) 전차를 타고 Bahnhof Enge 역에서 하차 (총 15 분 소요)

□ 스위스 전통음식

스위스 고유의 대표적인 음식에는 풍뒤와 라클렛이 있다. 풍뒤는 가마솥 같이 생긴 그릇에 치즈를 녹여 빵을 찍어 먹는 것으로서 겨울철에 주로 많이 먹으며 치즈종류에 따라 맛이 매우 다양하다. 라클렛은 치즈를 녹여서 구운 감자에 덮여 먹는 것으로서 라클렛용 치즈의 종류도 다양하다.

□ 아래는 스위스의 전통음식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 Zeughauskeller
 - 주소: Bahnhofstrasse 28a, Zurich
 - 전화: +44-211-2690
 - 홈페이지: www.zeughauskeller.ch
 - 주메뉴: 소시지, 스테이크, 구운 감자, 전통 맥주
 - 전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개로 한국어로 된 메뉴판도 구비되어 있다.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6 번(또는 7 번, 13 번) 전차를 타고 Paradeplatz 에서 하차
- Restaurant Swiss Chuchi
 - 주소: Hotel Alder, Rosengasse 10, 8001 Zurich
 - 전화: +41-44-266-9696
 - 홈페이지: www.restaurant-swiss-chuchi.ch
 - 주메뉴: 풍뒤, 라클렛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4 번 전차를 타고 Rathaus 에서 하차한 뒤 도보로 4 분

아. 관공서 관행

우리나라 대비 업무처리가 느리나 양질의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민 업무를 처리한다.

뇌물은 통용되지 않는 대신 관공서에 서비스 요청 시 거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 된다. 크리스마스 이후 1월 초까지는 업무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처리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서 12월 초 이전까지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공휴일

1) 휴일 지정방식

스위스는 연방정부에서 지정된 공휴일과 각 주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나뉘어진다. 연방정부 공휴일은 모든 주 정부에 걸쳐 공휴일로 인정되며, 주정부 공휴일은 해당 주 정부에서만 공휴일이 인정된다.

아래 공휴일은 취리히 주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나머지 25 개 주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공휴일이 1년에 1-2일정도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2009년 스위스 공휴일(취리히 주의 경우)

- 신년 (Neujahr): 1. 1~2
- 부활절 연휴 (Osten): 4. 10~13
- Sechselaeuten(젝세로이텐): 4. 20(12 시까지 근무, 칸톤 취리히에서만 개최되는 봄 축제)
- 노동절 (Tag der Arbeit): 5. 1
- 예수 승천일 (Auffahrt): 5. 21
- 강림절 월요일 (Pfingsten): 6. 1
- 스위스연방 설립 기념일 (Nationalfeiertag): 8. 1
- Knabenschiessen(크나벤쉬센): 9. 14 (오전 근무; 칸톤 취리히에서만 개최되는 청소년 사격 대회)
- 크리스마스 연휴(Weihnachten): 12. 24~26

3) 유럽 국가별 휴일 관련 사이트

- Feiertagskalender(www.feiertagskalender.ch): 유럽국가별로 휴일 정보 수록(휴일유래, 근무시간, 학교방학기간)

4) 출장 지양기간

부활절 전후로 상당수 기업들이 1주일 휴무에 들어가므로 동 기간 중 출장 시에는 상담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여름 하계기간에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휴가를 떠나 비즈니스 비수기이며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는 성탄절 연휴로 역시 비즈니스 상담이 어렵다.

또한 각 주 정부 별로 공휴일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출장 전 공휴일 여부를 확인 후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여행준비

☐ 의복

한국의 날씨와 비슷해 특별한 의복을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이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산악지역은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기온이 낮다는 점(여름에도 0도를 유지)을 감안하여 스위스 방문 중 산악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방한복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기

220V전압과 최대 10amp, 50Hz(AC)이며, 플러그는 2-pin, 3-pin 또는 earth socket 방식의 2-pin을 사용하고 있으며, pin의 크기는 우리나라보다 좁은 4mm직경의 원형이다.

노트북 컴퓨터 등 국산 전자제품을 스위스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규격과 현지규격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댑터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2) 여행 여건

□ 치안

정치, 사회,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치안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나, 최근 동구권 등 외국 난민의 유입 증가로 도난사건 등 범죄발생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항, 호텔 로비 앞 등에서 가방 또는 소지품을 분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참고로 집 보험에 가입한 경우 도난시에는 근처 경찰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분실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택시

회사별, 택시종류(공항, 일반)별, 도시 별로 요금이 달리 운영되나 기본요금이 5-7스위스 프랑이며 km당 3-4스위스 프랑이 추가된다. 시내 주요 지역별로 설치된 택시승강장을 이용하여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응급

스위스는 병원시설 및 관련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긴급처리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 여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할 시 국번 없이 144를 호출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취리히 시내 24시간 개점 약국은 Theaterstrasse 14에 소재한 Apotheke(전화: +41-44-252-5600)와 취리히역내의 약국이 있다.

□ 팁 관행

식당 등에서 팁은 서비스가 좋을 때 음식값의 10% 정도를 주며, 특히 카드지불의 경우 슬립을 가져오면 끝자리를 적당히 맞추어 준다. 예를 들어 61.30스위스 프랑을 지불할 경우 65스위스 프랑으로 맞추어 지불하면 적당하다.

□ 식수

자연보호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으나 대체로 석회질이 과다 함유되어 있어 방문자가 현지의 수돗물을 마실 경우 배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쇼핑

□ 물가

일반 소비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인근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현지 소비자들조차 주말을 이용하여 국경의 독일(Konstanz역 근처 쇼핑 타운), 오스트리아(St. Gallen 근처의 국경지대), 프랑스에 있는 소매점을 이용할 정도로 스위스 물가수준은 높다.

□ 쇼핑장소

취리히의 경우 유럽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는 Bahnhofstrasse를 중심으로 주요 백화점 (Jelmoli, Globus, Manor)을 포함하여 명품점이 밀집되어 있다.

취리히 시내 이외에도 주요 지역별로 쇼핑몰이 형성되어 있으며, 여행객의 경우 한번쯤은 쇼핑거리를 구경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다.

□ 특산품

스위스에는 초콜릿이 유명하며 쇼핑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초콜릿 대리점이 있다(예: Spruengli).

이외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종 민속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문점이 다수 있다. 대표적인 전문점으로 "HEIMAT-WERK(www.heimatwerk.ch)"를 들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스위스 전통 공예품을 취급하고 있다. 스위스 민속공예품 중 대표적인 제품은 종과 목각 인형을 들 수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비상연락처

스위스는 병원시설, 의료진들이 잘 갖춰져 있으며, 긴급처리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 여행 중 비상구호가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44를 호출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전화번호부에는 의사 등 의료진들의 전화번호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어 의료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취리히 시내 24시간 개점하는 약국은 Theaterstrasse 14에 소재한 Apotheke이다. (전화: +41-44-252-5600)

2) 우리나라 기관

- 주한 스위스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주소: Kalcheggweg 38, CH-3006 Berne, Switzerland
 - 전화: +41-31-356 2444
 - 팩스: +41-31-356 2450
 - 홈페이지: www.mofat.go.kr/ek/ek_a003/ek_chch/ek_01.jsp
- 제네바 상주 대표부(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주소: 1 Avenue de l'Ariana, Case Postale 42, 1211 Geneva, Switzerland
 - 전화: +31-22-748 0000
 - 팩스: +31-22-748 0001
- KOTRA 취리히 비즈니스 센터
 - 주소: Claridenstrasse 36, 8001 Zuerich
 - 전화: +41-44-202-1232
 - 팩스: + 41-44-202-4318
 - 홈페이지: www.kotra.ch

다. 관광명소

스위스는 알프스를 배경으로 만년설과 호수,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및 시골정경, 잘 정비된 도로 등 세계 최고수준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지라기보다는 휴양지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주요 관광지는 취리히(Zurich), 루체른(Luzern), 융프라우(Jungfrau), 제네바(Geneva), 체르마트(Zermatt), 생모리츠(St.Moritz), 생갈렌(St.Gallen), 루가노(Lugano), 노이샬텔(Neuchatel) 등 스위스 전역에 걸쳐 있다.

대부분의 관광지에는 여행자를 위한 관광안내 사무소가 있어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 별로 인터넷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어 스위스를 방문 전 방문 예정 관광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위스 관광청에서는 한글 홈페이지(www.myswitzerland.co.kr)도 운영 중이다.

○ 주요 관광 지역

- 취리히 지역: 취리히 시가지(Bahnhofstrasse), 취리히호수, 빈터투어(Winterthur)
- 동북부 지역: 생갈렌, 아펜젤
- 서북부 지역: 바젤, 솔로톤, 바덴
- 베른 지역: 베른 시가지, 빌, 에멘탈
- 베른오버란트: 인터라켄, 툰, 브리엔츠, 알프스산정상(융프라우, 아이거, 윈히)
- 중부 지역: 루체른 시가지, 루체른호수, 필라투스산, 리기산, 티트리스산 등
- 그리손즈 지역: 쿠어, 엔가딘(생모리츠), 크랑몽타나
- 티치노 지역: 로카르노, 루가노
- 바라이스 지역: 시온, 마테호른, 체르마트산, 크랑몽타나
- 제네바 지역: 로잔, Vaud Ri verd, 제네바 시가지, 레만호수
- 노이샬텔: 프리브르크, 노이샬텔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가. 건축 분야

- 스위스 신규 건축, 재건축, 라이프 스타일 전시회(Schweizer Baumesse fuer Neubau, Renovation, Wohnen und Lifestyle)
 - 기간: 2009.9.3-7일
 - 사이트: www.bauen-modernisieren.ch
- 스위스 건축 전시회(Schweizer Baumesse)
 - 기간: 2010.1.12-16일
 - 사이트: www.messe.ch

나. 게임 분야

- E-게임 전시회(Best of Interactive Entertainment)
 - 기간: 2009.9.30-10.4일
 - 사이트: www.egames.ch

다. 공구 분야

- 국제 공구 전시회(International Fachmesse fuer Werkzeugmaschinen, Werkzeuge und Fertigungsmesstechnik)
 - 기간: 2010.11.16-20일
 - 사이트: www.prodex.ch

라. 농업/유기물 분야

- 스위스 농업, 임업 전시회(Schweizerische Messe fuer Landwirtschaft, Wald und Forst)
 - 기간: 2009.3.5-8일
 - 사이트: www.agrimesse.ch
- 비타푸드(Vitafoods International)
 - 기간: 2009.5.5-7일
 - 사이트: www.vitafoods.eu.com
- 스위스 농업, 식품업 전시회(Schweizer Messe fuer Landwirtschaft und Ernaehrung)
 - 기간: 2009.10.8-18일
 - 사이트: www.olma.ch

마. 시계 분야

- 바젤 월드(BaselWorld)
 - 기간: 2009.3.26-4.2일
 - 사이트: www.baselworld.com

바. 예술 분야

- 바젤 아트 전시회(Art Basel)
 - 기간: 2009.6.10-14일
 - 사이트: www.artbasel.com

사. 자동차 분야

- 제네바 국제 자동차 전시회(Internationaler Automobil-Salon Genf)
 - 기간: 2009.3.5-15일
 - 사이트: www.salon-auto.ch
- 취리히 자동차 전시회(AutoExpo Zuerichsee)
 - 기간: 2009.4.3-5일
 - 사이트: www.auto-expo.com

아. 자동화 분야

- 자동화 기술 전시회(Die Technologiemesse fuer Automatisierung und Elektronik)
 - 기간: 2009.9.1-4일
 - 사이트: www.go-automation.ch

자. 재생 에너지 분야

- 스위스 재생에너지 및 신기술 전시회(Schweizer Messe der erneuerbaren Energien und neuen Technologien)
 - 기간: 2009.4.23-26일
 - 사이트: www.energissima.ch

차. 종합

- 아가우 소비재 및 서비스 전시회(Aargauische Leistungsschau fuer Konsumgueter und Dienstleistungen)
 - 기간: 2009.4.1-5일
 - 사이트: www.ama.ch
- 의약, 화학 및 바이오 분야의 R&D, 환경 및 공정 기술에 대한 전시회(Industriemesse fuer Forschung und Entwicklung, Umwelt- und Verfahrenstechnik in Pharma, Chemie und Biotechnologie)
 - 기간: 2010.9.21-24일(3년에 한번씩 개최)
 - 사이트: www.ilmac.ch

카. 집 및 정원 분야

- 집 및 정원 전시회(Haus- und Garten-Ausstellung)
 - 기간: 2009.2.28-3.8일
 - 사이트: www.habitat-jardin.ch

타. IT 분야

- ITU 텔레콤 월드(ITU Telecom World)
 - 기간: 2009.10.5-9일
 - 사이트: www.itu.int/world2009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 기관

- 정부 사이트: www.admin.ch
- 국회 사이트: www.parlament.ch
- 연방체제: www.federalism.ch

나. 경제 분야

- 스위스 경제부: www.seco.admin.ch
- 스위스 중앙은행: www.snb.ch
- 스위스 무역투자진흥청: www.osec.ch
- Economiesuisse: www.economiesuisse.ch

다. 산업협회

- 스위스 기계·전기·전자·금속엔지니어링 산업 진흥회(The Swiss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Industries: SWISSMEM): www.swissmem.ch
- 스위스 화학 산업 협회(Swiss Society of Chemical Industries: SSCI or SGCI): www.sgci.ch
- 스위스 시계산업협회(Federation of the Swiss Watch Industry: FH): www.fhs.ch
- 스위스 섬유산업연합회(Swiss Textile Federation: TVS): www.swisstextiles.ch
- 스위스 물류산업협회(Swiss Association of Logistic: SGL or ASL): www.sgl.ch
- 스위스 플라스틱협회(Swiss Plastics Association: KVS): www.kvs.ch
- 스위스 환경산업협회(The Swiss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SVUT): www.umwelttechnik-verband.ch
- 스위스 수입·도매업자 협회(Federation of Swiss Importers and Wholesale-Traders: VSIG): www.vsig.ch
- 취리히 테크노파크(Technopark Zurich): www.technopark.ch
- 스위스 건축 기록 협회(Schweizer Bau Dokumentation): www.baudoc.ch
- 스위스 건강 관리 협회(Swiss Health Care): www.swisshealth.ch

라. 기타

- 통계청: www.statistik.admin.ch
- 관광청: www.myswitzerland.com